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宇垣大將大命拜辭
十一時五十分宮中參內코

【東京至急電話同盟】大命을 拜受하고 組閣工作을 進行하고 잇든 宇垣大將은 陸軍의 全面的反對에 逢着되여 二十九日 午前十一時五十分宮中에 參內 組閣의 大命을 拜辭하엿다

은至尊에對하야 기피恐懼에不堪하옵는同時에 또國民에對하야도 多大의責任을 痛感하고 잇는바이다

大命拜辭를압두고 모든手段을講究
宇垣內閣流産直前의大緊張

【東京電話同盟】大命降下以來依然停頓狀態를 繼續하고잇든 組閣本部는 昨夜의 降雪은 降雨로 變하야 끈치어서 나리는雨中에 異狀한 空氣를 包藏한채로 一夜를새엿다 二十九日朝 突然宇垣大將을 中心으로한 五人組의 一人林彌三吉中將이 聲明을發表하야 本部內外에 非常한 緊張과 異常의波紋을 投하엿다 午前九時半組閣의 最後運命을決定할 今日의 情勢를 察知하고 本部로 모혀드는 人士들의面貌에는 冷氣에 떠하야 緊張된비치 一層濃厚하다 「重大發表」라는소래와함께 갈작이몰려드는 記者群을헤치고 應接室에 나타난 林中將은 蒼白한 얼굴에 決意를갓추고 和服에 草履로 한손에 革椅를들고 悠然히 안저 記者團을 向하야 昨日午後 宇垣大將의 使者로 河合大將을訪問하고 現下의情勢를 披瀝한다음 陸軍大將의 顚末에 對하야 힘잇게聲明한다 緊張된 報道陣의 갈리는펜도 元氣잇게 原稿는 電話口로 옴겨젓다 中將은 「라운바」의 斷信인데 엇던가」고 悠悠히 手中으로 헛둘엿고 所感을 謙謙히 述한다 處遇班의프래쉬의 放射를 밧으면서 毅然히 생각나는바를 聲明한다 中將의 態度에는 壯烈한 決意가 感知된다 말을맺고 中將은 이것뿐이다 하고 階段을 一步一步나와 二層으로 사라진다 陳痛五日 遲遲不進하든 組閣本部에 남어잇는 手段이라는 것은 이것이엿다 悠悠히 二層應接室에 잇든 宇垣大將은 午前十一時四十分 自家用뻬크「一九八五六號」로 宮中에 參內하엿다

宇垣氏軍籍離脫 陸相의同意必要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이 陸軍大將의官을 辭任하면 陸軍將校分限令第三條第一項「本人의願에依하야 그官을免한時」에 該當하는데 陸軍大臣이 秘書의責任을 가지고잇슴으로 陸相의 同意가 업스면 實現의可能性이 업다 陸軍에서는 아즉通知를 接하지안타고 말하고잇다

宇垣氏軍籍離脫을 河合大將翻意要望

【東京電話同盟】組閣工作에 努力中인 宇垣大將은 現在의 對陸軍關係에 鑑하야 此際 陸軍官을 辭하고 軍籍을 離脫할 決意를 鞏固히하야 軍의長老인 樞密顧問官河合操大將에게 其趣旨를 述하엿든바 河合大將은 此事를 中止하도록 翻意를 要望하엿다

大命拜辭後에 宇垣大將談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 組閣의 大命을 拜辭하고 宮中에서 退出한後 組閣本部에서 左와如히 말하엿다 只今參內하야 組閣大命을 拜辭하고왓다 大抵內外時局이 重大하고 容易치안흔 社會情勢임으로 政情이 자못不安하야 邦國의前途가 자못深憂에不堪하는바잇는故로 此際 擧國一致下에 國體의 尊嚴을 護持하고 時局의 開通을 企圖하고 一日이라도 速히 聖旨에 奉副하려고 誠心誠意로 힘잇는限 努力하얏스나 드데여 大命을 拜辭하지아니치못하게된것은 나의不德의結果로 上...

議長이單獨으로 天機奉伺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天機奉伺에 關한 衆議院各派交涉會는 二十八日午後六時부터 議長官舍에서 開會하고 富田, 岡田正副議長, 田口書記官長及民政黨小泉, 內崎, 淸水(留), 濱野, 澤田, 土屋, 政友會安藤, 植原, 土倉, 昭和會木, 猪井, 社大黨井, 淺沼, 第二控室田川, 今井, 東方會三浦, 杉浦等 諸氏가 出席하야 議長으로부터 時局이 重大하야 議會도 閉會되여잇는바 國民의總意를 代表하는 意味에서 天機를 奉伺하기 바란다고 諮한바 이에對하야 先例가잇는가 問題되여 田口書記官長으로부터 先例가업다는旨를 答하고 麻生久, 井貫一郞氏(社大)로부터 本會議를 開催하고 院議에 依하야 決議하면 反對한다 이러케하면 天機를 奉伺함도 意味가 잇다 特히 宮廷關係는 一切先例에 依하야 行할것이다 라고 反對하고 三浦虎雄氏(東方會)도 「議長은 獨自의 意味에서 天機를 奉伺하라」 그亦是 反對의 意思로 小泉又次郞氏(民政)이러하얏음은 一派다 一人이라도 反對者가 잇스면 하지 안는前例로 全會一致가 아니면 行할것이 아니다 고 述하야 容易히 決이 나지안흠으로 靑木精一氏(昭和) 大吉氏(第二) 植原悦二郞(政友) 等은 別段 政治的意味는 업스므로 單純히 天機奉伺를 爲하야 本會議를 開會하드라도 關係업지안흔가 고 主張한바 淺沼稻次郞氏(社大)도 政治的意味는 업다고해도 이 結果 政治的運動으로 惹起할 虞가잇다 고 贊成치안코 懇談을 거듭한結果 正式交涉會를 再開하고 小泉氏로부터 此際 議長이 單獨으로 天機를 奉伺하는데는 누구나 異論이 업는模樣이니 一同이에 贊成하야 議長에 一任하고 午後八時 散會하엿다 따라 別로히 本會議를 開會치안코 富田議長은 二十九日 參內하야 天機를 奉伺하기로 決定하엿다

富田議長天機奉伺

【東京電話同盟】富田衆議院議長은 二十八日各派交涉會의 決定에 基하야 二十九日午前十一時에 宮中에 參內하야 天機奉伺의 記帳을 行한後 宮內省에서 松平宮相과 會見하고 時局重大에 鑑하야 公式으로 衆議院의 總意를 비롯히 天機奉伺에 參內한 旨의 執奏를 依賴하고 退下하엿다

[illegible]

『라덱』氏等十七名에 一律로銃殺求刑
蘇聯反革命公判結果

【莫斯科八日發同盟至急報】蘇聯聯邦最高法院軍事部에서 라덱氏等 被告十七名에 對하야 一律로 銃殺을 求刑하엿다

反革命公判契機로 獨蘇國際危機意識

【伯林二十八日發同盟】莫斯科의 反革命併行本部의 公判은 連日에 亘하야 獨逸諜報機關이 存在하엿든것이 明白하게되엿다 ... 獨逸政府의 對蘇關係는 ... 二十日 議會에서 行한 ... 危機 ...

000855

西安側에서 中央妥協條件應諾

【上海二十九日發同盟】西安中央妥協交涉은 謝關에서 中央側代表 顧祝同氏 西安側代表 何柱國氏間에 進捗되고잇든바 西安側은 中央側의 妥協條件을 應諾하야 二十九日 午後부터 潼海線에 配置된 張學良軍의 左右兩翼部隊의 一部가 前線으로부터 撤退를 開始하엿다 中央側은 一週間以內에 張學良, 楊虎城軍의 全部가 撤退를 完了하고 西安을 中央軍에게 接收케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傳하는 妥協條件의內容은 左와 如하다

一、張學良軍은 甘肅으로 移駐함
二、楊虎城軍은 陝西省渭川以北으로 移駐함
三、中央軍은 西安及隴海沿線에 駐屯함

이라고 한다 ... 가 다시 獨佛兩國間의 全面的經濟提携策에 對하야 獨逸政府의 意向을 打診하리라고 觀測된다 이 結果如何에依하야 兩國政府間에 다시廣汎한交涉이 開始될模樣이다

佛通商局長伯林行 新通商協定交涉次

【巴里二十七日發同盟】佛國政府는 伯林駐箚폰세大使를 通하야 獨逸政府와의 間에 新通商協定締結協議를 繼續하고잇든바 準備交涉도 거의 完了되엿슴으로 佛國代表 알론 外務省通商局長官은 二十八日 伯林에 赴하야 獨逸政府當局과 具體的交涉을 進行하게되엿다 알론 代表는 一步進하야 ...

後繼內閣首班에對해 湯淺內府에御下問
園公에勅使御差遣乎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 二十九日 組閣의 大命을 拜辭하엿스므로 天皇陛下께옵서는 直時 湯淺內大臣을 御前에 부르시사 宇垣大將大命拜辭에 依한 後繼內閣首班에 關하야 御下問하압시엿다 이에依하야 湯淺內府는 元老 西園寺公에 御下問하압시도록 奉答하얏다 宇垣大將大命拜辭後의 重大時局을 處理할 內閣首班에 關하야 勅使를 西園寺公에 御差遣하압실 模樣이시다.

定例閣議經過

【東京電話同盟】廣田內閣의 定例閣議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야 廣田首相以下各閣僚出席 人事를 決定하고 最近政情에 關하야 여러가지 情報를 交換하고 同十一時五十五分 散會하엿다

宇垣大將과 一問一答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은 廿九日 午後零時四十分 組閣本部에서 記者團과의間에 左와 如한 一問一答을 行하엿다

問 大命을 拜辭한 閣下의 感想은 如何
答 새삼스러히 그런말을 물을것이 업다
問 如何한 理由로 拜辭하엿는가
答 그러한것은 생각하여보면 알것이 아닌가
問 陸軍大將을 拜辭하엿는가
答 인제쯤은 辭表가 나가잇슬것이다
問 그理由는 如何
答 大將이라고하는것은 豫備後備에 不拘하고 三軍을 指揮치 아느면안될 地位에 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 自己가 現在와 如한 情勢下에서는 拜辭할수밧게 업지 안흔가 이以上은 뭇지 마러라 諸君도 苦生하엿다

早川警視總監 湯澤次官訪問

【東京電話同盟】早川警視總監은 二十九日午前十時五十分 內務省에 湯澤次官을 訪問하고 協議하엿다

組閣難으로 各省行政事務澁滯

【東京電話同盟】宇垣大將에게 大命이 降下한後 이미五日 宇垣內閣은 未曾有의 組閣困難에 直面하야 政局은 容易히 安定될 模樣이 서지안는다 그結果 各官廳의 行政事務에 多大한 澁滯를 生케하고 잇스며 特히 新內閣에 依한 議會解散을 豫測하는 고도 明年度豫算行政整理問題를 압두고 잇스므로 各事務當局은 後繼內閣問題가 急速히 圓滿히 解決을 하기를 期待하고 잇다 이點에 關하야 二十八日 首相官邸에 열린 事務次官會議席上 各省次官間에 여러가지 對策이 協議되여 各事務當局으로서는 政局의 至急한 安定을 期待하는同時에 行政事務上 重大한 支障을 招來하지안는事 善處할것을 協議하엿다

百武侍從長 松平宮相訪問

【東京電話同盟】百武侍從長은 二十九日午前九時 麴町區三番町 宮相官邸에 松平宮相을 訪問하고 一時間에 亘하야 協議하엿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 人事

內閣調查局調查官 藤田繼之助
長崎縣知事 近藤壤介
宮城縣知事 三島誠也
京都帝國大學教授 西原利夫
神戶商業大學敎授 平井泰太郞
敍高等官一等(各通)
同 五百旗頭眞治郞 田中保太郞
敍高等官二等(各通)

大竹內務局長 南朝鮮視察

大竹內務局長은 大邱赤行橋開通式에 總督代理로 臨席하기爲하야 三十日午後二時四十分發列車로 大邱에 向할터인데 開通式臨席後 釜山, 馬山, 晉州, 麗水, 南江現地, 全州, 裡里, 大田等을 視察하고 二月六日 歸任할터이다

사이베리아丸 海參威에寄港

【敦賀電話同盟】抑留事件에 關하야 歐亞連絡船 사이베리아丸의 海參威航路는 一時中止할것이냐 아니냐는 拓務省과 折衝을 거듭하든 北本汽船社長 野村氏는 外務、遞信兩當局의 保障에 基하야 特히 駐日蘇聯大使館으로부터 이以上의 强壓을 加함은 업다는 言質을 바덧스므로 本海員組合의 諒解를 어더 二十八日午前十一時 淸津港의 사이베리아丸에 此旨指令을 發하엿다 同船은 同夜八時 淸津發 二十九日午前八時 海參威에 入港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川岸第二十師團長 新義州及昌城守備隊巡視次로 三十一日午後十一時 京城驛發 二月四日歸任豫定
▲深堀游龜氏(朝鮮軍參謀) 參謀會議出席次로 三十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渡東 二月十一日歸任豫定
▲徐椿氏(本社主筆) 講演次慶北安東에 出張中 二十九日歸社
▲朱洛瓚氏(本社咸興駐在記者) 二十七日咸興府成川町四丁目一六五自宅에서 遭內艱

八面鋒

◇ 자고나도 제혀, 宇垣氏는 如前히 萬難을 排除하고 最後奉公을하겟다한다.
◇ 陸軍과의交涉은 될대로다한 모양, 이以上무엇을 기다리는지 組閣本部의 謀略은 難測.
◇ 敦賀、海參威間日本海航路는 蘇聯側의 監禁事件以來 아조斷絶된狀態.
◇ 滿洲鐵道와 西伯利亞鐵道의 連絡까지 끈치는날이면 歐亞의連絡은 막힐影響.
◇ 靈界를말하고 武器를베르르고 民族感情을 助長식히고 國民과國民이 흘겨보고.
◇ 이것이 오늘날世界大勢라하면 부처님가르친 平和主義者가 아모리 念佛을 한다해도 한판싸움은 免키어려울形勢.

옷감 舊年末粗品附大賣出 옷감
韓靑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各學校卒業記念寫眞帖作製印刷 (コロタイプ)
笹沼寫眞印刷所
京城府軍營通り 電話長一五七番

ハンドバッグ專門 製造卸
夏屋 京城 本町二丁目 電本局七四九番
舊年末선사는 夏屋핸드빽을

朝報案內

外務 男子出張外務員募集 活動家歡迎 希望者는 履歷書持參本人來談 要保證人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六二 日本動產火災保險

中古 各種機械賣買
京城府水町二六 中村鐵工所 販賣部

新産金株推奬
金 銅
森新一商店
森弘道商店
大興證券株式會社

生徒募集 (晝夜)
京城實踐簿記學院
京城府太平通

社員募集
一、資格 中等學校以上의學校를卒業하고 銀行、會社、金融組合方面의 經驗이 有한분
二、事務取扱 會計及帳簿記帳
三、履歷書提出 二月五日까지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新民謠
늬나늬나놀
아리랑 ... 李圭南
두리둥둥 全壽麟 金玉貞
빅타-레코-드

十個年絶對保險不良한때는交換함
最新流行型

七大景品附新春犧牲大奉仕
大景品內容
ウォルサム代用純國產 精工舍製十六型懷中
クロム側16型懷中 瑞西製
ウォルサム16型懷中
タバン·シーマ(限定)16型提
景品の關係上內金なき代引は絶對發送致しません
東京市淺草區松葉町
天賞堂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평권俱樂部本社招聘氷上大會遂開幕!

銀盤우의神技絢爛 場內人氣總集中

五百米부터戰端開始

스포-츠조선의의기 자못솟직하게 마즈신춘을 가장빗나게 장식할 동경평권구락부초빙 빙상경기대회는 본사주최와 백구활빙구락부후원아래 금이십구일 오후두시부터 청량리경링크에서 백열적인끼속에열리엇다 우리빙상경기계의존재를세계무대에인친 은반의왕자 김정연(金正淵)장우식(張祐植)량용사를비롯하야 전일본의 패권을획득한 최룡진(崔龍振)군등 사계의총아(寵兒)들이 향토의은반우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세련된묘기를 발휘하는날이라 만도의시청은 오로지 이에집중되여 금년드러처음보는 성황을 이루운가운데 입장식은 본사기자 고봉오(高鳳梧)군의 사회로 열리어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의 개회사가잇슨다음 조선체육회회장 윤치호(尹致昊)씨의 축사가잇섯고 평권군을 대표하야 김정연(金正淵)군의 답사가 잇슨후 본부위원 김룡구(金龍九)씨로부터 경기진행에대한 주의설명으로서 식을마치고 오백메ー돌·레ー스로부터 경기의막이열리엇다

이날기온은령하삼도 바람한점업고 빙질조차량호하야 더욱나위업는 『컨디숀』이엿다 "무진장(無盡藏)의김군"이라는별명을듯는 김정연군의 독특한활주법과 최룡진군의 『코-너-워-크』의묘미 그리고 평권군전원의 튼지만만한활주에 만장은 흥미와감격으로서대하엿다 이리하야 벽두오백미돌에는 최룡진(崔龍振)군이일착하야 만장의기염을 토하엿다

五百米(세파레-트코-쓰타임레-쓰)

一着 崔龍振(평권)四十七秒六▲二着金正淵(평권)四十九秒一▲三着安重熙(평권)五十秒▲四着鄭石彦(평권)五一秒一▲五着張日弘(평권)五十一秒半

◇兩軍得點 평권俱樂部十三 白狗俱樂部二

(사진은 본사사장방응모씨의 개회사광경)

釜山朝紡職工 三千餘名賃金引上要求

一部에서는怠業狀態

【釜山支局電話】 부산부 범일정(凡一町)에잇는 조선방직에서는 직공삼천여명이 수일전부터 휴게시간마다 서로모혀 울까고등에대하야 현재의임금으로는 도저히 견디지못하겟다고 그대책을 구수협의중이든바 지난이십팔일 정오에이르러 각직장장을 중하야 현재의 임금을 이할내지 삼할을올려달라는 요구를제출하엿다 이요구를바든 회사당국은 현재회사간부들이 전부동경에가고업스니 즉석에서당할수업고 간부들이 도라온후 협의회답하겟다는 통고를하엿스나 직공들은 이를듯지안코 일부직공 이삼백명은 방금 태업상태에잇다 부산서에서는 소림(小林)고등계주임이하 계원총출동으로 경계하는중으로 직공측은 매우 강경하야 총파업할형세도 업지안흐며 울까고등한 이때라 다른공장으로 파급할형세도보인다고한다

埋立工事中에 人夫二名壓死

二十九日典農町에서

이십구일아침 아홉시쯤 되여서 부내 전농정(典農町)산팔번지에서 매립공사(埋立工事)를 하고잇든 신당정(新堂町)이백륙십륙번지의구호 최룡철(崔龍喆)(三七)과 동사헌정(東四軒町)경제일보사장(經濟日報社長)소야구태랑(小野久太郞)씨의 신축공사장에 가튼정 이백륙십오번지의 오호 김백순(金白順)(三○)두사람이 그 산허리에서 진흙을 파고잇든중 돌연 그산이 문허저서 그만 그미테 압사되고 마럿다고 한다 원인은 요사이 나리여싸힌눈이 그날아침부터 녹기시작하야 그와가튼 참변을 일으키엿다고 한다

生活難飮毒

부내약초정(若草町)십삼번지에 사는 빈병장사 내영하(乃榮夏)(三三)는 이십팔일 오후열한시쯤에 생활난을 비관하고 『칼모틴』이백개를 먹은후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곳 부근 금촌병원(今村病院)에다리고가서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은건질것갓다고한다

婦人問題討議

今日第一回會合

부인문제를 중심으로 생활, 교육, 수양등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부인계각방면 지도자급 이십여인이 이십구일 오전십시부터 부내 서린정(瑞麟町)린보관(隣保舘)에모히어 연구협회를 개최할터인데 이들은 장차는인게 여러가지 문제를연구실행할 상설기관을 조직하야 일반이 대망하는 여러가지일을 연구검토하리라는데 그중심인물은다음의제씨이다

梨花女子專門學校 方信榮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 趙圻烘 誠信女學校 李淑鍾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孫貞圭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 宋今璇 梨花女子專門學校 高凰京 社稷町二六二 洪姙娠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金蘇賓 梨花女子專門學校 金活蘭 苑南町二九 金麗仁 中央保育學校 車士百 梨花女子專門學校 徐恩淑

咸興師範學校 開校延期

【咸興】 함흥에 신설하는사범학교는 오는사월부터 개교할예정이엿든비 내각총사직으로 약이개월간 늣게될모양이다

殺兒한假醫師 西署에被逮

시내서대문서 고등계에서는시내마장정(馬場町)칠백팔번지의십사호 신광균(申光均)(×)이라는 로인이 표면은 간장장수를 하면서 불온한 서적을 만히가지고잇다는것을 탐지하고 이십칠일밤 이를습격하야 조사한결과 그와가튼 서적은업고 신분한장을 소중히간수하고잇서 …

亂鬪劇演出끄테 同盟罷業斷行

會社側食言에感情惡化한 釜山澤山組人夫百五十名

【釜山支局電話】 부내 대창정(大倉町) 부선업자(艀船業者)택산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의 전속인부 백오십명은 임금인상의 조건을 실행치안는다는 리유로 이십구일아침에 동맹파업을단행하엿는데 이제 그내용을자세히 알어보면 지난십일월 부산의부두로동자삼백여명이 부내부선업자들에게 울까고등한리유로 임금을 인상하야달라고 요구하엿든바 로동자측의강경한 형세를견제할정책으로 일할내지 일할오분가량의 임금을 인상할것을약속하고 사건은 일단 해결되엿스나 그후전기택산형제상회에서는 일할내지이할가량의 임금을인상할 약속을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이래실행치를 안코잇슴으로 작이십팔일에 택산조인부측에서는 회사측에다 시실행을요구하엿더니 불응하는태도를보혀 분득이 인부측에서는 태업을개시하얏다 회사측에서는 그대책으로 림시인부삼십여명을 모집하야 취업케한바 이회사측태도에 분개한 인부들은 이십팔일 오후아홉시경에 제인잔교에서 림시인부들과 감정는계로 충돌되여 일대란투극까지 연출하얏는데 이급보를 듯고 택전(澤前) 파출소에서는 소원이 총출동하야 현장에서 주모자로인정되는자 수명을 검거하얏다 사태가 이에이르자 쌍방의감정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저서이십구일아침에는 택산조인부일백 …

五百圓强奪逃走犯 警官이追擊逮捕

白臺冷泉町에傷人强盜事件

西大門署에凱歌!

작년중에 시내서소문정 (西小門町) 봉래정 (蓬萊町) 교남정 (橋南町)세곳에서 나타난 강도범인을 부잡지못하고 아직껏불면불휴의활동을 계속하고잇든지 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는 그칠홍성가튼 수사와경계진의효력이 잇섯든지 이십구일 그관내에 또다시흉악한 강도가나타낫스나 즉각으로 체포를 하게되여 서대문서에는 깃븜에 터지는개가가 올라가게되엿다

사건인즉 이날 오후한시사십분경에 시내 랭천정(冷泉町)칠십이번지 영야현도(永野顯道)씨의 집에 그의 안해되는리즈에(三二)기 혼자잇는데 돌연 장한 한명이 침입하야 자기는 전기회사에서왓다고 돈을 내라고 하다가 갑자기 큰 돌멩이로 전기여자의 뒤통수를 때려누이고 현금오백원을 강탈도주하엿다

피해자의 비명을 부근을경계하고잇던 서대문서원이듯고 곳현장으로 달려가서 사건을본서로 급보한결과 우근(羽根)서장이제일선두에서고 그서간부 형사대전부가 현장으로 질풍신뢰적으로달려가 민활한활동을 개시하야 형사대가 한참동안도망가는 강도를 추격한후 일대격투끝에 이를체포하게되엿다 취조한결과 범인은 시내공덕정(孔德町)이백십이번지박경서(朴慶緖)(三四)로서 전기 피해자가 서대문 금융조합에서 현금오백원을 차저서가는것을보고 이를뒤따라가서 그와가티 강탈한것을 자백하엿다

피해자는 곳적십자(赤十字)병원에입원하야 응급치료를 바닷는데 후두부에 전치약삼주일간의상처를 입엇스며 강탈된오백원은그대로 무사히 찻게되엿다

사진은수훈의서문서장과강도범인

長湍에强盜

이십팔일오후다섯시십분경 장단군대강면독정리(長湍郡大江面篤正里) 허헌(許軒)(三×)이가 독정리(篤正里)길가를 통행중 엇던자가 산허리에 밀어 너머트리고 그가가지고잇는 돈지갑을 빼앗고 다라낫다고한다

舊歲暮黃金町에 覆面强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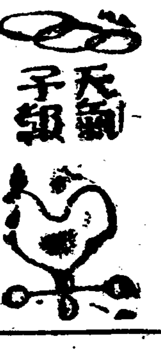
舟橋町서食刀發見 식도로위협십칠원강탈도주

이십팔일오후 아홉시사십오분쯤 부내 황금정(黃金町)사정목 삼십번지 큰길가에잇는 연초약종상(煙草藥種商)▲원등구치(遠藤久治)(×)집에 이십사오세가량되여보이는 청년한명이 와서 안약을 사려다가 돈을이저버렷다고 하며 박그로 나갓다가 약오분후에 다시목도리로 복면을하고 드러와서 맷자꼿차 방안으로 드러오며 기리가오촌 가량되는 단도를겨누며 여페잇는돈궤짝에 손을너허 담배판돈 십칠원가량을 집어가지고 도망하엿다 이급보를 바든 본정서에서는 곳비상소집을하야 맹렬한 수사를개시하엿스나 현장에는 범인의유루품이 아무것도 업고 오후 열한시반쯤에 주교정(舟橋町)방면에서 범인이 사용하엿다고 추측되는 식도를어더서 방금지문 처흘에 고심하는중이라고한다

遠藤氏談 나와가족두사람이 가티잇섯습니다 말씨가 조선사람의쓰는것이오 얼골모습을 보아조선사람이 틀림업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이도망한후 곳쪼차나갓스나 행방이 자세치안허곳 경찰에알렷습니다

扶衛交通事故

이번지 아페서 본정(本町)이정목 우정상운당(友井尙文堂)의소형자동차를 정원리동일(李東日)(二〇)이가 운전하여가지고 전기지점에왓슬때에 반대 방면에서 변행하야오든황금정행(黃金町行)경전(京電)일백오십삼호와 조일(朝日)자동차부 경(京)구천오십일호사히로 지나가려다가 처음에자동차와 부드치고 곳방향을 돌렷스나 또다시 전차와 충돌하고말엇다 전차의 피해는일백팔십원가량으로 승객은 무사하며 조일 자동차부의 『택시』는 약집오원의손해 리동일은 인후(咽喉)중앙부에 전치약십일을 요하는타박상을닙고 욱정(旭町)뢰호병원(瀨戶病院)에서 치료를밧고잇다 그리고 소형자동차의피해는방금조사중이다



天氣予報

豫報 今夜는개이고 추어진다 來日도가트며 京畿全區도 갓다

昨日最高 零下一度四 最低 零下五度○ 零下九度八 零下五度八

變態殊常漢

최근동서헌정 (東四軒町)과 서사헌정 (西四軒町)일대에는 신장이 오척사오촌가량되며 백색로이드안경을쓰고 회색오ー바에 다갈색중절모자를쓴 변태성욕자가 밤마다나타나서 통행하는부녀자에게 수상한행동을하는자가 배회한다는데 본정서에서는 며칠전부터범인을잡으려고 고심하는중이라고한다

어 … 사는 리모의딸의 어루려가 다가 잘못하야 그소녀가 사망되여 버렷는데 이기사가 신문에 게재된것을 보고 그신분을 고쳐 준다고하야 … 올려가지고 전기의 장소에도망하여와서 숨어잇던것이 판명되여 서대문서에서는 이를과실상해치사죄로 취조하게되엿다

『에로』犯

이십구일새벽 두시경 시내 혜화정(惠化町)구번지의이호 정복흥(鄭福興)(二三)은 종로(鍾路)이정목 빠 금강(金剛)에서 얼근히 술에취하야 길거리로 나오다가 마침 그압을지나든 관철정(貫鐵町)일백이십칠번지 부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 주 …

파려먹고도 똑가튼營業

東洋工業職工 同盟罷業斷行

休業日적게해달라고

시내 중림정(中林町)삼십번지 동양공업주식회사 (東洋工業株式會社)직공 열세명은 수일전부터 세가지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는데 그요구는 최근물자폭등으로말미암아 원료부족으로 한달에반은 일을쉬게되니 휴업일을 적게해달라는 것과 울까가울럿스니 임금을 올려달라는것과 일꿈을 자조지불해달라는것이라고한다 공장측에서는 일꺼리가업는것은 최근철재폭등의 일반적 경향으로 할수업다고 하나 그들로동자도 구여성임두고 비통한 소리를 하게된것으로 소관서대문서고등계에서는 그추이를 주목하고잇다

지 … 기소된 … 의 키쓰 … 가 제지하려고하자그를 때리고 폭행을하야 드되여 … 을 한게가는 서대문서 … 명 … 구 (金 … 엿다。

鹿島丸慘變事件

海事審判遂開廷

當日結審·言渡는追後

작년 시월이일 인천(仁川)근해에서 폭풍으로 전복침몰되여 선객오십구명 선원한명 어린애 세명합계륙십삼명의사 … 한 녹도환(鹿島丸)(二十八噸)에대한 해사심판사건은 이십구일오전 열시반경에 조선지방해원심판소(地方海員審判所)에서 장전(岡田)심판장 신곡(新谷) 적(荻)심판관 독강(獨能)리사관의 판여아래개정되엿다 곳 피심인(被審人)인 선장김성윤(金成允)의 심리에드러가는데 선체의 구조와 그안정성 선장의 처치여하 풍랑때에 한 조타(操舵)처치여하와선객구조방법등에 대하야 심리를 하엿다 오전중에 사실 심리와 증거조사를 끗마치고 오후에는 리사관의의견진술이 잇서 대체로이날로서 심리가끗나고 피심인에대한처분은심판원의결정에의하야 후일에 이를언도한다고한다

정 … 이 … 조선지방해원 … 피고 … 회 … 개하자 … 주정씨(朱正植)(三… 자(盧瑞龍)씨를 상대로 이십팔일 경성지방법원 … 민사부에 … 선해정회의 … 일고는데 … 만원에 … 대하야 수십만원의금 … 면 주정씨는 … 이어로 사용 … 하야 장치정과 아울 … 의 … 피고로 … 와부조 … 리엿 … 원고회사와 분해 … 가 주회사 … 조선지방해정회의 … 기 … 하고 지 … 방해경희 … 판부 … 원고 … 피고가 … 와의가를 해리는 월고와피고가 … 대정십일년에 조선해경협회출판 … 심판기간은 경성부내에서 가름 … 위반되는비만큼 피고회사로 … 판매… 하지안는다는 계약을 … 어금 경성부에서 출판영업과잇 … 이어 보조 … 업무를 하지못하게 … 하는동시에 인쇄영업을 하기위 … 하야 조선지방해정회인쇄부라 … 는 상호를 쓰지안토록하여달라 … 는것이다

喘息

不治아니다 原因부터治療하자 今津博士의새로운療法

(今津博士와그의病院)

이병은감기, 결핵, 편식, 변비, 위장병등으로신체를기르는피가탁해저서기관에 부착하야 신경을 자극하고 발작하는것이며 …

正宗의名産地·馬山

ツヤミドリ 艶綠 馬山·村崎酒造場

高級淋藥治淋 ゴノチリン 確ナ藥効 淋病藥ノ 研究より に年の 種類揃へました 定價 二圓 四圓 包裝 百錠 二百錠 淋病藥の御相談は (合資會社)京城新藥社 京城府漢町二ノ九三 電光③二七三六番 支店 滿洲國奉天大西邊門外 電本②二八八九番

補藥 엔蔘草六味 元이第一! 不足症、肺病에藥이낫느니다! 陰萎、早漏에神効! 一劑十圓、試用分五圓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二二二九九番

好職業

株式募集廣告 一、資本金 拾萬圓也 二、總株數 貳千株 三、一株額面 金五十圓也 一、申込期間 自 昭和十二年一月十五日 至 昭和十二年二月十五日 昭和十二年一月十五日 江景邑中町朝鮮產業株式會社內 株式會社江景魚菜市場創立事務所

癎疾

痙攣·졸배、히스테리ー腦貧血

이병으로인생에거 흐르는이에게 … 하는대本書로 自家에서根治하는 …

道內唯一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朝鮮高等電醫總本院

分院長資格特別講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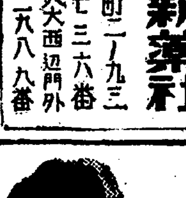
最新最效 物療電醫責任養成 本院總長은東京高等醫學校前校長 內務省令으로新制度許可 ◎物理最効醫學全科를短期卒業 全國本院卒業自由開院安心 ◎今回三卒業後分院長이되는特典이잇슴 迷惑치말고배워서生涯成功의길을求하라

講習生募集 公認 新義州時計技術講習所 募集人員 五十名 開講 二月十五日 新義州府梅枝町八 規則書請求次第送呈(要二錢切手)

啓聖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百名(詳細는二錢封入照會) 大邱新町 出願期日 三月十九日限 試驗期日 三月二十二日부터四日間

第一學年 約百名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試驗期日 三月九日、十日、十一日 出願期日 三月六日까지

生○器의 形과力 弱少와包莖은簡單히낫는다



男子가되여서 年旣長成하여도 生殖器가短小、包皮가길어서 … 特許下實物宣傳中 無代進呈 東京中野 眞空療法研究所

新築落成 入院室完備 스팀設備·洋室·和室·溫突 產科·婦人科·小兒科 精華醫院 京城府黃金町一九五番地(電車安國町下車) 女醫 張文卿 電話光化門一九八六番

入學規則은二錢切手 各種學校 京城第一自動車生徒學校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番地 電話本局五三六番

各種酒類 卸散賣商 兄弟酒店 京城崇仁町一九九 舊正初도休業치안함 電 光 一○四

光化金비녀出現 品質本位價格低廉 特約店募集 京城西大門町一丁目二一 光化堂製作所

◇一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日晝夜二回 上映 夜七時開映 提供日本版!! 大○G一映畵의예이스!! 監督…샘·우드氏 暗黑街全滅 全十卷 主演 리챠ー드·아ー렌氏 助演 …메아리스·칼라르 氏 提供日本版 驟染의로동자의칸다ー君一代의傑作 監督 노ー만·타ー몬드氏 寢笑 當り屋勸太 全十卷 …化的「勸太」 漫畫 (全一卷) 桃花劇場 京城府漢江通一番

◇一月三十日晝間부터特別封切 土、日、祭日만晝夜二回 大衆料金十錢均一 始映夜七時 既久待望中에잇든三大名畫一時堂堂上映!! 警官車十一號 快男兒마고이氏主演 ▲코롬비아映畫特作全發聲日本版 爆彈도라크 ▲名星위리스스포드氏主演 新興키네마特作大映畫 明治十三年 新興올스타캬스트 光武劇場 黃金町

少年少女新聞

蔚山城의 淸正

加藤淸正이 朝鮮蔚山城을 包圍하엿슬때 軍糧이떠러저 말고기와 흙을먹어 兵士中에病者와 死亡者가만하큰困難을 바더다는有名한이약이 는五學年修身冊에도쓰여잇다

이修身時間에 업서서는 안될 淸正敎育掛圖를『わかもと』箱子에드러잇는『掛圖引換券』을 보내주는學校에 無料로보낸다

各家庭에서 每日먹는『わかもと』에添附한『掛圖引換券』은한장도 버리지말고 學校先生님께 드립시다 學校에 퍽有益함으로 先生님이 깃버하신다

結核消耗症及胃腸衰弱에對하야

헤ー엠 微生物療法

胃腸壁을强化、榮養吸收昂進、抵抗力增大、病弱體質을健全하게한다

『わかもと』는 近代醫藥學最大의發見인 有益菌헤ー엠와 아스페루긴스・오리ー제中에서 가장 醫學的價値가넘는 菌種을選擇綜合하고 이것을世界的有數規格을자랑하는『わかもと』工場에서 特許方法으로製劑한 微生物劑이다 本劑가 左記와가티 넓고 各科의 疾患에對하야 卓越한 醫療的效果를 낫타내고잇슴은 京都帝國大學에서『細胞組織培養』『血液像變化』等의 精密한 試驗을보드라도 明白히 알수잇스며 特히 비타민B 複合體의 含量이 豊富함에이르러는 到底히 他의單純한 培養酵母、パン酵母、麥酒酵母가 딸으지 못하는바이다。

主要適應症

慢性衰弱症 體內에溶菌、殺菌素를增加、抗病力을强하게하고 結核의病原을 閉塞하며 體力의 消耗衰弱을 恢復식힌다。

胃腸諸症 衰弱한 胃腸壁을 强壯식히고 消化吸收、機能을 活潑하게하며 食慾을 增進、便通을快適하게한다。

虛弱乳幼兒 乳幼兒의 榮養障碍、特히 人工榮養兒의 消化不良을 防止하고 虛弱腺病質兒의 健全한 發育을 助成한다。

姙産婦衰弱 惡阻、浮腫、其他姙娠中의 榮養障害를 防止하고 産後의 衰弱貧血을 恢復식힌다。

疲勞老衰 肉體에 榮養을 補給하고 老廢物의 排泄와 精力原의 補給을 圓滑하게하며、肉體의 過勞와 老衰를 防止한다。

著しく食慾を增進す

結核、其他慢性病者、傳染病恢復期患者、姙娠、産後貧血、榮養障碍를밧는 婦人等에『わかもと』를 投與하면은 食慾이增進하는것을 불수잇고 便通을 規則的으로調節 血色良好、安眠、疲勞感의 減退를봄이 順序的이다。이와가튼 慢性衰弱者는 거진 甚히 胃腸衰弱에 빠진때문에 榮養이 豊富한 食餌도 充分 消化吸收할수잇다。또 吸收容易한 榮養劑도 大槪는 單一成分으로 되엿기때문에全般的衰弱、榮養障碍에對해서는 만흔 效果를 期待할수 업섯든것이다。

그러나『わかもと』는 每日投與量 不過二乃至 六그람으로短期間內에食慾不振을 除去하고 衰弱을 恢復 榮養狀態가 顯著히好轉함을볼수잇는것은 本劑가 얼마간의 榮養素를 給與함에 不過하엿든 從來의 榮養素와달나 人體榮養의 뿌리요、술기인 胃腸機能을 全面的으로 强化식히며、日常食餌의 榮養吸收率을 昂進식히는 榮養促進劑인 때문이다。

内臓機能を鼓舞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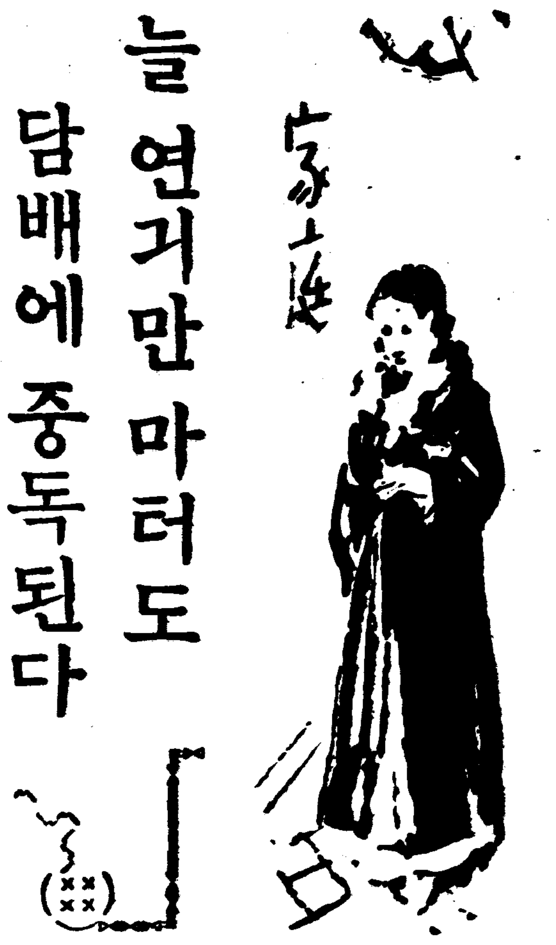
이 現象은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라하야 力臓機能鼓無作用에 依하는것인대 即衰弱疲勞한 組織細胞에 更生하는 活力을 주고 消化의 分泌、榮養成分의吸收、有害物의分解、病菌의 殺滅等作用을 活潑하게하며 體內의 抗症力、健康恢復力을 훨신 놉히는것이다。

『わかもと』의 類似藥인 培養酵母劑 ビール酵母劑等은 單只 비타민B의 含有量 數種의榮養素、酵素等의 效果를 强調하는것뿐이나『わかもと』는 이러한 成分을 모도 網羅하고 비타민B複合體의 食有量만 하드라도 數倍나더 優越하야 그 特色은 어듸까지든지 細胞原形質 賦活作用에잇서 上記한것가티 廣範하고 慢性衰弱疾患에 應用하매 獨特한 效果를 發揮하는것이다。

胃腸榮養 わかもと (와가모도)

藥價低廉
粉末九〇瓦 錠劑三〇〇錠・壹圓六拾錢
粉末二百七十瓦・四圓五十錢
錠劑一千錠入・五圓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代表芝一一七五番



늘 연기만 마터도 담배에 중독된다

피우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피울일 약으로는 된장과 복사

담배에는 좋은 니코틴이라는 독소가 잇서서 사람의 몸에 여러가지로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물론 그 해가 술의 알콜과가티 그러케 심하지는 안타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게 보아 버릴것은 아닙니다。의학자를 딸아서는 니코틴중독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는이도 엇지 안습니다。이런학자의 말을 들어서는 그 해가 심상치 안흔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그러나 그러타고 모든 사람이 담배를 다 끈허 버리자고하면 될 듯이나 한 소리입니까? 그 것은 공연한 헛소리요 어떠케 그 해를 제거하야 가면서 담배를 피울 수는 업겟습니까?

직접 담배를 그대로입에 무는것보담은 물주리를거치어빨어드리는 것이 좃습니다。그점으로 보아서 담배는 물주리를 댄담배가 안댄 담배보담 조코 물주리를안댄 담배도 그대로 피는것보담 딴물주리에 끼워서피우는것이 좃습니다 물주리는 길사록 효과가 터해집니다。조선의 장죽이라는것도 미상불 잘생각해 맨든것이라고 보이어집니다。중국에는 수연통이라는것이 잇스니 그것은 니코틴을 물로홀어 드리게된 것입니다。요사이 신식물주리중에는 탈지면이나 서면을 끼워서 피우도록되어 잇는데 그역시 수연통과가튼 이치ㅅ속입니다。다만 긴 장죽도 새끼마케 진이 안저서는소용이 업습니다。진이 안지안토록 늘주의해야됩니다。

×

니코틴의독을 어떠케 회피적으로 해가업도록 면할지 못할까 연구들을하고잇습니다。담배가 몸에 니코틴이 다른 물질과 화합해서 해가업는 물질로 변할수만잇다면 아조 좋을것입니다。그러나 아직 그러케 묘한방법은 발견이되지 못하얏습니다。글세 아프로도 발견되지 안켓지 그것은 모르는 노릇입니다。열을 들어서는 복사가 담배독을 제거한다고합니다。또는 된장이 담배먹는 사람에게약이 된다고도 합니다。이 두가지는 과학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잇는지 모르지만은 그러 전문이가 업는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도리어 과학자들이 연구하야 그 근거를 밝히지안하면안되리라고생각합니다。

담배의 독이 과연 자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확모르지만 현재에 잇는 사람에게는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엣날서양의 어떤종교가는 조흔 담배를 어떠서 특 다른사람을 시키어 피우고 자기는 그연기만을마탓다는데 이것은 연기만 맛는데도 중독이 된 증거입니다。자기가 피우서 자기가 중독이 되는 것은 차라리 조치만은 까닭업시 여펴스사람에게까지 이워를 끼치는 것은 좀 생각해 볼문제입니다。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안악네라든지 애기네가 잇는데서는 좀 끈란하시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곱배기″경기고테 끗에는 악취의참회

수도의 대가도 장탄식한다

″술깨는비방은 업는가!″

술을 누구나다 먹지만은 다면 이글은쓸필요도 업겟지만 광학을 몰론하고 주량이저가 나날이 증가해가는 동시에 무엇보담 섭왕하는것을 보면 술먹는사람이 점점늘고 궁주하는 사람이 주려가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어떠런 외지에서 들어오는 술은 고사하고 조선내에서 생산하는 술도 평자는 확실한 통계를 지금 가지지못햇스나 변변히 평장히 증가하고 잇는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소리는 그만두고 본는을 말슴하면 술먹는사람은 일반으로 과음하기쉬우며 또먹지못하는 사람도부득이한 사정으로먹고 고롱밧는 사람이 흔잇습니다

술을만히 먹어서 대단히 취햇슬때는 즉 알콜중독증에 걸렷스므로 몸안에잇는 알콜을 나오게하는것이 두말할것업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몬저 위안의 알콜분을 좋리려온 말이지만 따듯한물을 만히 먹고 목구녕안에 손을너어 인공적으로토해버리는것이 조슴니다 다음 소창(小腸)에 남어잇는알콜분은 설사약을 먹어서 배출케합니다。다시 별서흥수된 알콜분에대해서는 리뇨제(利尿劑)를먹어 소변을 만히 누게하는것이 좃습니다。이외가리 처치하면 취한것이 잘 깹니다 특히 설사약을 먹는것이 제일유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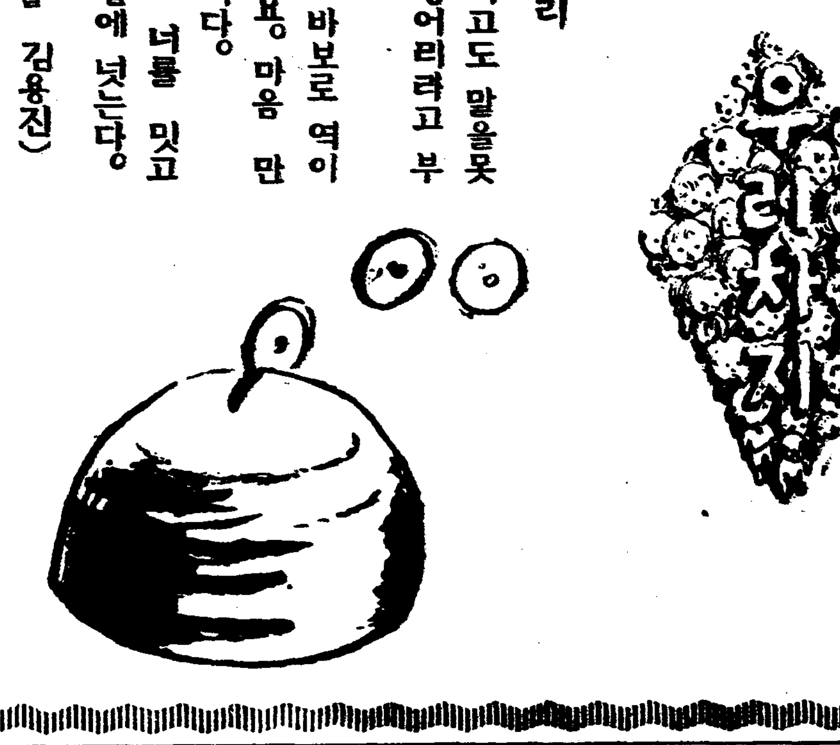
그러케 만취되지안코 반취되엇슬때는 본지에도 이미 기재되여 여러분도 읽엇슬줄압니다만 감을 먹으면속히 깹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속에잇는 탄닌산과 알콜이 결합(結合)해서 불용성알콜(不溶性酒精)이되므로알콜이흡수되지안케때문입니다 또 몸을 차게가지는것도 대단히 조슴니다 그러므로 술먹은 그이튼날 아침에는 특히 일쯕이이러나서 산보하는것이 조슴니다。그리유는 몸을차게하면 몸안의 산화연소(酸化燃燒)가 왕성해지는대연소의 제일배른것이 알콜이므로 자연몸안의 알콜분이 속히 업서지는고로 결국 속히 깨게됩니다 이외에 각개인의 경험상 이약저약의 조타는사람도 잇습니다만 별로 신통치못합니다

어떠한이되지 날려어 술먹는것을 ... 술것입니다。그러므로 술을 먹으면 ... 내는 ... 좋을입니다 그러나 후 약취되어 고통밧는것을 보면 누구나다 이것을 어떠케속히 깨게하는법이 업슬까 생각하실줄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저다에 쓰게된것입니다(筆者 ... 李 ...)

벙어리

입을 버리고도 말을못
하니까 벙어리려고 부
릅니다。
그러치만 바보로 역이
지마십시요。마음 만
은 곳습니다。
벙어리야 너를 밋고
돈을 네입에 넛는다。

(글쓴사람 김용진)



短篇小說 抗進記 (4)

金廷漢 作 鄭玄雄 畫

그러나 사람이렴것은 그리 흔하게 잇는것이 아니다。잇슬만한 자리를 얼핏은데 차지가면 그저 한꼬기 맛볼동말동。그러나 그게라야 재칫하면 남이 먼저 따낸 빈가지뿐이다。

『이런 여기도 다따냇군!』

아버지는 허방을 짚을때마다 이러케 중얼거리며 커다란혼을 웅크러고는 다시가지사이를 빠저나간다。

『엣-기, 망할놈의것!』

두호는 뽕나무도 맘대로 찾지못하고 간곳마다 낫바닥에 거미줄만 집어씌운。그러니깐 자연 화도 며낫다。자나 깨나 편들만을 잣바저 노는 형이 새삼스럽게 미웟섯다。——아무리 어정자비라도 병신아니다음에야 요만일쯤은 넉넉히 거들수가 잇술텐데 백발이 다된 어버이가 저러케 허둥대는 꼴을 빤히 집작하면서도 그까진 일은 내모른체 방바닥에 업처잇다니!게다가 오늘은 영애까지 더리고 그 엄청난 사회니 인생이니하고 까치배바다가튼 소리를 또 시부렁거리지나 안홀까 생각하면 낫바닥에 가래침이라도 배아터 주고시펏다。

그러나 화는 화요, 일은 일이다。두호의 눈과 손과 발은 여전히 뽕만을 찾고헤맷다。

이러케 두 부자는 오로지 뽕만을 차자서 갈렷다가는 다시 맛나고 마조첫다가는 다시 갈려가며 꾸준히 그산을 더듬어 올랏다。그리다가 마침내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 간곳을 이젓다

악치듯한 낫술기가 지난뒤 매지구름은 산꼭대기를 갈퉁고 안개는 작고만 더 지터갓다。

이윽고 두호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어렴풋이 울렷다。동순간 그는 귀를 쫑그렷다。동시에 불길한 생각가 번개가티 머리속을 선뜻지낫다。

그러나 두번째의 소리도 바람때문에 잘 들리지 안핫나。

세번째만에 비로서 똑똑이들린소리、——

『두호야——』

멀리서 오는아버지의소리다。

『네——!』

두호도 물이나케 맛고함을첫다。

『어디 잇니?』

『여깁니다!』

두호는 겨우 말을 노앗다。

『무호야——。』

『네——。』

매번이나 이가튼 소리가 주고바든뒤에 마침내 아버지가머리우에 나타낫다。

『저런!왜 그런 위태한 곳에까지 내려갓니?』

두호는 무서운 낭떠러지끄테 부러잇섯다。보기만해도 아질아질한。

『어서 올라오너라。』

아버지는 참아 볼수가 업는드시 고개를 돌린다。

『괜찬허요。』

두호는 그래도 대담스럽게납은 가지를 마자 휘여잡는다。

『아서라 얘!그만두고 와!』

아버지는 이마를 잔뜩 찌프리며 아들을 나므랫다。

두호는 허는수업시 그러나앗가운드시 잡앗든 뽕나무가지를 노코서 곰새끼처럼 조심스럽게 낭을 기여올랏다。

아버지는 배우에 흙니픔 서너조각 대고잇섯다。

『왜 그래서요?』

두호는 불안을 느꼇다。

『뭐 아무러치도 안허。뽕나무가지에 조금 긁혓네。던 참만히 따구나!』

아버지는 되려 씩 웃스며 아들의 광주리속을 부러운드시바라볼뿐이엇다。

『또 남게서 떠러젓군요』

두호는 즉납사귀로 배여나온 피를 노려보며、상을 찡흐렷다

두부자의 광주리에는 모다뽕니피 가득가득 차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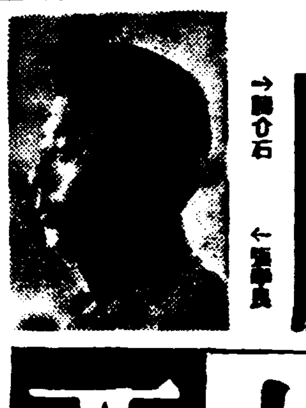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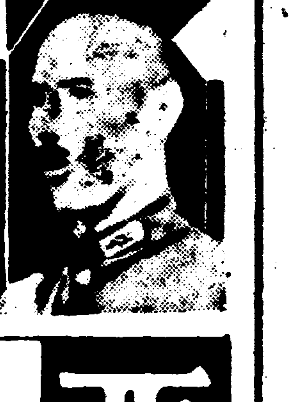
『자-인제 가자고!이만 하면 이틀은넉넉히 먹일테니깐。』

아버지는 자못 만족한듯이 압장을 나선다。얼굴에는 군데군데 검버섯이 추려하게 피고 저진 뽕니플 두 광주리나 걸머진 까닭에 새우가리 등이끄브러지고 약대가리 목이 죽빠젓다。

朝光 二月四大(特輯號)

西安事變의精神的背影 洪陽明

人物로본蔣介石·張學良 洪起文

↑蔣介石 ←張學良

西安事件以後의中國經濟 李健赫

米國의信用制度……許然

商店과써-비스……韓昇寅

現代中國·政治家·思想家人名辭典……朝光編輯室編

栗谷先生誕生四百年

特輯의辭……主幹
現代朝鮮과栗谷先生의地位……樗牛山人
儒學史上으로본栗谷先生……李丙燾
李元秀와山村美婦……耳公
栗谷先生의逸話……車相瓚
栗谷先生年譜……編輯室

本誌定價四十錢

누구나읽지안흘수업는常識의寶庫朝光은 ... 賣盡되기前에速히注文하십시오조금만늣지면絶版이되기쉽니다

朝鮮山水歌 李殷相

※※※四色刷의豪華로운 ... 詩人鷺山李殷相氏가心血을傾注한朝鮮山水歌를 ... 本誌가 ...

朝光常識室……朝★主要國統治者★主要國陸軍兵制★世界各國富★世界猶太人散在表★世界共產黨員★世界金融★無産代議員★世界圖書館數★最近의高麗高塔★最近의 ... 風景

現代獨逸哲學의動向 安浩相

朝鮮演劇의當面課題……李雲谷

朝鮮外來語論 李鍾極

新春創作概評……白鐵

文壇地理誌 現役作家群像……新山子

現役朝鮮의作家를地理歷史的으로그려본名文이름이잇슴으로써朝鮮現役作家의世界를鳥瞰할수잇슬것이다

精神美……金興濟

特★刷★畵★報
舞踊 □사랑의꿈……朴桂子 □僧舞……崔承喜 □劍舞……裵龜子 □킨……趙澤元
曺晚植先生 結婚寫眞

當選實話 私生兒의懺悔 元順甲

露文豪푸-쉬킨死後百年祭
▲푸-쉬킨의生涯와藝術……咸大勳
▲푸-쉬킨과나……李瑄根
▲푸-쉬킨百年祭……(뉴-스)
▲詩 세샘물……푸쉬킨 一步譯

冬至禮物 없어진民俗集 白花郎

朝鮮旧正의三大戲 青吾

朝鮮映畫特輯 ◆五夢女(京城撮影所作品) ◆나그네 ◆純情海峽 ◆人生航路 (大邱聖峯映畫所作品)(滿鮮金剛映畫合同作品)

畫壇點描 牛鈴生

保護觀察令의適用範圍 李鍾模

保護觀察令이發表된後朝鮮內에서는이法令에適用될사람이얼마나되며어떠케處理하게되나?

新聞兩面大 八道江山 웃말판 四色刷 讀者에게 奉呈

天下名人洪繼寬……翠雲人

鬼神會談記……리종모

詩 憂鬱한午後……異河潤

隨筆 放浪記……姜鷺鄉

文化問答 趣味問答 渡世問答 生活問答 유모어問答
李克魯……梁柱東……李石薰……張文卿……金周經……柳澄基……朴英浩……徐光霽……李雲石
朴致祐……金基鎬……宋錫夏……安懷南……金末峰……李一……高炳憂……鄭保羅……李鐘洙
方鍾鉉……吉貞姬……金煥泰……張赫宙……任貞爀……金珖燮……李泰俊……鄭槿陽……李軒求
白信愛……金裕貞……李勳求……金壽任……朴基采

當選小說 苔……李起炫

新春의經濟界……金翰容

日蘇漁業의紛議……韓普容

南北長老系諸學校의前途 特派記者

南北長老系教會學校가朝鮮에는專門中等小學合하야數百을헤인다이제이學校가今年부터모도閉鎖된다고한다果然이問題는어떠케되나 ...

創作陣의大豪華版

短篇小說 童骸……李箱
短篇小說 따라지……金裕貞
中篇小說 麥秋……李箕永
長篇小說 續川邊風景……朴泰遠
長篇小說 未完成……朱耀燮
探偵小說 毒死事件……金煥泰
시나리오 燕歌……安夕影

發賣中!

注文은迅速히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中篇小說에 對하야
—그 量과 質的槪念에 關한 試考—
② 崔 載 瑞

이것을 東京의 綜合雜誌의 實例에 適用하야 본다면 短篇은 四十頁以上 超過함을

—不一— 許한다는 內規가 各社에 잇스나 例外도 잇스니 偶然의 一致일른지 모르나 日本의 短篇小說이 槪念에 西洋으로부터 輸入된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首肯할수 잇다. 그리고 長篇은 元來 綜合雜誌에 실리지 안햇스나 最近 雜誌에 散見되고 昨年 改造社에서 募集한 長篇 『文藝』에 揭載되엇다.

十頁以上에서 『多死なず』를 例로든다면 그것은 二百十頁이엿다. 이것도 偶然의 一致라고만 할수업는 事實인듯 십다.

아것을 우리 雜誌의 實際에서 보더면 어떠하나? 最近에 잇서서 新東亞 連載小說中 가장 길엇든 成大勳氏의 『鵠岸漫筆』은 總合一百二十頁이엿다. 이것은 약가 말하면 短篇小說의 範圍를 超過하얏스니 위선 短篇小說에 알맞은 分量을 갓추엇다고 볼수잇다. 그리고 短篇에 잇서선 七·十七頁로부터 十七八頁까지 잇스며 十頁內外가 第一만다. 何如튼 短篇이라면 위선 一回完結이 되야되니 한글雜誌의 現狀으로보아 十頁內外 卽 二百字原稿紙六十枚前後가

—第一— 다. 適當할른지 모르겟다. 이것을 日本綜合雜誌에 比한다면 約三十頁假量의 差異가 잇스나 何必 길어야 조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三十頁前後가 平均이 되도록 作者나 雜誌 經營者의 努力을 바라지 안흘수 업다.

다음으로 問題의 中篇이나 그 稱呼에 잇서서 아직도 嚴密한 規定이 업는 模樣이다. 『朝光』에 실리는 朱耀燮氏의 『未完成』은 처음에 中篇이라 하얏든지 今年 正月號부터는 長篇小說이라고 改稱하얏다. 그리고 嚴興燮氏의 『情熱記』도 中途에 몃번式 稱呼가 달라젓다. 그러나 大槪 三回以上 連載

되는 作品을 中篇이라고 부르는 模樣이다(例를 들면 朴泰遠氏의 『川邊風景』)이다.

이 小說은 三回連載가 五十七頁이엿다. 그中에서 第一回는 中篇다면 五十二三頁될것이다. 中篇小說로선 좀 貧弱한 分量이라 하겟다. 二十頁前後가 短篇의 本格인 現狀에 잇서서

—六— 十頁前後로부터 八十頁前後까지를 中篇으로 친다면 短篇分量의 三倍乃至五倍가 되니 適當한 標準이 될가한다.

勿論 小說 分量의 槪念을 그 量으로만 規定한다는 것은 大端히 俗

俗的인 일이다. 나는 內容的으로도 規定하야보고 그러한 槪念으로서 昨年에 發表된 中篇小說中 優秀하엿다고 생각하는 몃개를 吟味하야 보라한다. 다만 量的으로 中間的 限界 卽 三回分五十頁以上의 中間的 制限은 그들 作品이 內容的으로 相當하기 때문에 아무러케나 取扱하야도 조흔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二、中篇小說의 質的槪念

處女作에 成功한 어떤 作家가 그 作家로서 自己의 力量을 試驗하야 보겟다고 하얏드니 그 成功할수업는 作品은 中篇이 되고 長篇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하얏다.

—女— 作家는 늘 大端히 刊行을 힘쓰고 그 表現을 表面的인 物件이 되지 안흐면 中篇小說이 어떠한 事件인가를 생각하야 보고 中篇은 一個의 完全한 것으로서 內容上 短篇에 대하야 어떠한 것일가?

이것은 韓國에 大端히 困難한 問題이다. 過去 嚴密한 理論을 가지고 그 槪念을 規定한데서 그것이 實際의 作家가 實際로서 그 것을 잇게 드러낸다면 그뿐이다. 그러나 實際問題로서 長篇小說과 짧지는 것을 수업고 短篇小說으로 구별될수 업는 材料를 잇슬법한일이다.

元來 短篇이란 單一한 氣分 情緒 觀念 或은 人生劇의 一斷面等을 緊迫한 手法으로서 表現하는 企圖이다. 따라서 短篇이 成功하라면 주제의 中心點이 될만한 機轉에 이르러 비로소 作者의 意圖를 늘리웁으로서 解得하고 또 이러한 理想的으로 말미아마 아직까지 우리가 잇지 못하는 어떤 氣分이라든가 觀念이라든가 人生의 一斷面을 淸新하고

—切— 實하게 느끼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短篇의 적으나마 매우 만흔 魅力을 늣길수잇다.

—隨 筆— 病床迎春記 (二)
金 裕 貞

날이 호리기를 焦躁히 기다리며 미다지께를 빤질 처다본다. 그러다 압집 용마루를 넘어 해는 어느듯 미다지에 퍼지고 만다 제─기 왜 이리 밝은가 빌어먹을 혜뎅어리 까지도 안흘려나 까닭업시 홀로 역정을 내다가도 불현듯 또한 걱정이 남아잇슴을 깨닷는다. 자고나면 낫을 씻는것이 사람들은 조흔 일이란다. 나도 팔을 것고는 대여아페가 쭈그리고 안지 안흘수 업다. 그리고 이손으로 물을 적어다 이마에 부차고는 이생각이요 저손으로 코등에 물을 적어다 부치고는 저생각이다.

이리하야 洗手 한번에 三四十分 잘못하면 한時間도 넘는다.

간신히 수건질을 하야 저리 던지고 이불속으로 꾸물꾸물 기어들려면

『아주 아침을 잡숫고 누시지요』하고 性急한 命令이다. 그래도 苦役이 또 한가지 남은 것이다. 밥이 참으로 먹고가 십지 안타. 마는 그러자면 못먹는 理由를 이리저리 둘러대야 할게니 더욱 귀찬다. 다시 똥 싯둥싯 일어나 상전에다 허울 바처노는다. 조카는 이것 저것 내腸胃에 마춤뜻 시픈 飮食을 코미테다 꺼러대여 준다. 그러면 나는 저까락을 버처들고 집어먹엄 들어가는 입속에 너허 名色만으로라도 朝飯을 치르는 것이다. 이러캐밥을 먹는것에까지 修養을 느끼게되면 사람은 문히 버렷다 눈물감고 옷깃옷깃 새김질을 하고잇다가 문득 생각나는것이 잇서 문밧게서 울을 피고 잇는형수에게

『오늘 편지 업서요?』하고을 어본다. 그도 그제서야 생각난 듯이 아까 대문간에서 바며

두어순 葉書 몃장을 방안으로 드리민다. 조타, 반갑다. 片紙를 밧는것은 말할수업시 반가운일이다. 하나씩 하나씩 精誠스리 뒤적어린다. 年賀狀, 年賀狀, 原稿督促狀, 年賀狀. 아무거라도 조타. 하얀 빈 종이가 날아와도 이때 이때 나에게는 넉넉히 幸福을 갓다줄수 잇다. 밥 한술 떠너코는 다시 뒤저보고, 또한 떠너코는 또한번 뒤저본다 새해라고 그러니 病을 고만알 흘련다. 호웅, 싶어노은 소리도다 만코 언제 헤가 바꾸엇다고나 도 모른는새 해가바뀌는 수도 잇는가. 突然스리 회를 내가지고 방한구석으로 藥書를 내동댕이 처고나니, 느린 食事에몹은 이미 氣盡하고 말앗다.

食後 三十分乃至 한時間에一匙式 服用하라는 太田胃散이다 床에서 물러 안자 한 너덧수갈 되는대로 너코는 慌惚히이 물속으로 파고 든다 끄울꺽, 끄울꺽, 胃散을 먹고는 시원스리 트림이 나와야 먹은 보람이 잇단다. 아니 나오는 트림을 우격다짐으로 끄울꺽, 끄울꺽, 이러케 애를 키다가는 이 건 또 웬일인가, 갑작스리 아이구 배야. 아랫배를 쥐여뜻는 腹痛으로 말미암마 이마에 진땀이 내솟는다. 冷水에 胃散을 먹엇드니 아마도 거기에 脹氣가 나부다. 아이고 배야, 배야 다시 일어나 淸涼劑 寶神丸 十餘介를 꾸겨너코는, 이번에는 이불속에서 가만히 업디려본다.

食後 直時로 이러케 눕는것도 決코 衛生的이 못된다. 하나 아무래도 조타. 健康만으로 살수잇는 이몸이 아니니까─

나에게 나즌 큰 怨讐가 잇다. 이어 解決만 안보면 된다. 정나지 되여오면 太陽은 미다지의 全幅을 占領하야 들어온다. 망할놈의 太陽. 쉴줄도 모르느냐. 미다지를 向하야 裏를 가려치고 그리고 이불을 들쓰고 눈을 감고 이러케 어둠으로 파고든다. 마는 비치란 그리 쉬사리 막는것이 아니다. 눈꺼풀로호미한 光線을 느끼고는 입맛을 다시며 이마에 주름을 잡는다.

다시 따저보면 나는 넉넉지 못한 조카에게 와 폐를 끼치고 잇는 身勢엿다. 늘 그 恩惠를 感謝하여야 할것이요 그 아페 溫順하여야 할것이다. 허나 나는 요즘으로 사람이 더 욱 실혀젓다. 형수도, 조카도, 아무도 보고 십지가 안타. 사람을 보면 發狂한 개와가티, 그러케 險惡한 性情을 갓게 되는 自身이 딱하엿다. 옷속으로 사람 하나 누울만치 터전을 남기고는 四方으로 빵 둘러어 帳幕을 가려치고 말앗다.

現代歷史哲學의 回顧와 展望
① 鄭 賢 奎

現代哲學과 歷史意識

歷史哲學 或은 좀더 똑똑하게 말하면 歷史科學은 모든科學의 基礎科學이다. 이것은 現代哲學이 우리에게 주는 한개의 똑똑한 命題다. 만일 이命題에 對하야 疑惑을 품는者잇다면 그것은 現代哲學그自身의

—實任— 도아니며 이러케말하는 筆者의 責任도 아니오 「歷史」그것의 槪念을 잘못認識한 或은 잘못傳하여바든 歷史家 그自身의 責任일것이다.

흔히 『現代는 以前에는, 美術家의 歷史 美術史는 잇섯스되 美術의 歷史 美術史는 업섯다하며—』글拉數에는 言語學者의 歷史 言語史는 잇섯스되 言語의 歷史 言語史는 업섯다하거니와 이기록한 歷史 經濟史는 經濟的 方法論에

잇서서 大體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다름아니다. 「歷史的事件의 羅列」이라는것과 「事物을 歷史的으로 把握한다」는것과는 史的方法論에 잇서서 조연다른 만큼에 意味한다 한개의 事實을 意味한다 다시말하면 「歷史的事件의 羅列」이란것은 唯物主義的 歷史觀 實證主義的 歷史觀 救命的 歷史觀을 背景으로 하여서만 비로소 發生할수잇섯든 한개의 歷史的 考察方法이엇든것이며 「事物을 歷史的으로 把握한다」는것은 그것과는 따로 文化史的方法論以來의 發展的歷史觀을 背景으로하여서만 비로소 發生할수잇섯든 歷史的考察方法이엇든것이다. 그러테 物語主義的歷史觀이라든가 實證主義的歷史觀이라든가하는 이런

色다른

—一群— 의 史觀이 一群의 歷史에 繼承的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각기 어떤時代 어떤社會를 現實的地盤으로하고 나타낫을것이엇든一群의 歷史的考察方法이엇든것이다. 그러테 그런데 人類의 社會生活이 이때까지 卽 우리가 現實的으로 살고잇는 『이때』까지 自己疏外의 過程을 밟은 오늘에 와서는 그前처럼 雜多하게 그저 歷史的『이야기』를 만히 안다든가 넷時代의 偉大한 歷史的事件을 自己의 立場을 辯護하는 가하는 이가튼 主觀스러운 狀況에 우리를 두지안코 좀더 現實的으로 모든 事物을 「歷史的 發展에서」 보지아니치못하게된다는것이다.

即 이때의 現實은 現代哲學으로 하여금 歷史意識을 發見치 아니치못하게 한것이다.

우리는 「헤겔」의 파든라와 「안토니우스」가 (紀元前四十四年에 結婚하엿다는 자미잇는 한개의 歷史的事件을 알며 「나폴레온」이 「조세핀」과 一七九六年에 結

婚하엿다는 다른한개의 자미잇는 歷史的事件을 알되 大體

—結婚— 이란것을 『歷史的으로』 卽 「美實的移行에서」 把握하여야 가튼 發展過程의 어떤段階에서 본적이 잇는가 現實的社會의 살고잇는우리의 結婚形態를 具體的으로 把握함에는 結婚의 歷史性이 問題가 되여야할것이아닌가. 우리는 일즉이 風俗習慣의 歷史性을 把握한적이잇는가 道德의歷史性 法律의歷史性 哲學의歷史性 眞理의 歷史性 觀念諸가 歷史意識을 通하야 미의 世界에 形態를 把握하여본적이 잇는가 다시말하면 모든科學을 歷史意識의 基礎우에서 본적이 잇는가 現代哲學은 眞實하게도 이런問題 卽 歷史意識이니 歷史的自省이니 하는 이런問題에 對하야 무서운關心을 가지게되엿다.

現代에잇서서 歷史哲學研究에 功績이 만흔 新칸트學派 特히 「빈델반트」와 「리컬트」는가 歷史科學의 方法論에 關하여 研究하엿든것이라든가 가을 자랑한 精神的状況에 關하야 實存哲學이 特히 現代的自省 歷史的 理性批判 歷史的自省에 關하야 研究하여 「西田哲學」이 「無의論理」에서 歷史的世界를 限定하여 보고저 하든것이라든가 모다가튼 무서운關心을 端的으로 表現한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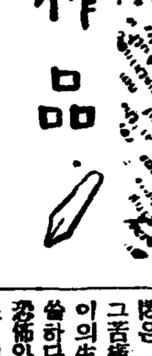
이처럼 이때에 살고잇는 現代哲學者들이 歷史的意識에 關한問題, 歷史的自省에 關한 問題를 問題삼게된 理由는 그네들의 哲學的趣味가 偶然하게도 한方向으로 一致되엿다는가 그네들의 性格이 偶然하게 비슷해서 그런다든가 하는 이런事情에 基因하는것이아니라 그네들이 살고잇는 이現代社會가 그네들이 現實的으로 살고잇는 이現實狀況이 그네들로 하여금 이歷史問題를 問題삼게 만든것이다. 이때의 現實이 그네들로 하여금 現實的社會를 歷史性에잇서 卽『歷史的으로』 具體的으로 把握하지아니치못하게 한것이다.

—實存— 哲學者 「하이덱겔」과 「스페르스」가 時間的存在에 關하야 硏究하엿다는것이라든가 社會的現實에 關하야

흔히 學者들이 十八世紀를 理性의 世紀 十九世紀를 歷史의 世紀라 부르거니와 이것은 普通으로 解釋되는것처럼 十八世紀에는 啓蒙學者들이 나서 個人의 理性을

—武器— 로삼아 在來의 傳統과 因襲을 破壞하엿든것인데 十九世紀에는 浪漫主義者들이 나서 革命을 阻止하고 『가톨릭』과 騎士의 中世傳統으로 돌아갓기 때문이다 라고 解釋될 것이 아니라 다가치 同一한 社會的地盤우에 서든 哲學者들이 十八世紀에는 理性의 哲學을 十九世紀 特히 二十世紀에서는 歷史의 哲學을 부르지게된것은 다른까닭이 아니라 전에는 自己네들의 意識을 尺度로 從來의 社會를 批判하엿든것인데 이때의 現實은 그네들로 하여금 그런 餘裕를 주지는 업고 그네들이 살고잇는 그情況의 限界性을 自省하게된까닭이다. 歷史意識이란 凡然한意義 空虛한意義가 아니라 참다운意味의 限界意識인것이며 自己의 現實的生活이 極限狀態에 에 마조설때 이런歷史意識이란 참답게 把握되는것이다.

學生作品



隨想 生活의 沈澱 (二)
普專 趙 正 得

未來의 世界는 靑年의 世界이며 새世界이며 새世紀의 主人은 우리젊네며이손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잇는 이 말이다. 米國의 學生運動도 들엇고 埃及의 靑年運動이든지 더─가깝게 中國의 學生運動이 다 잘 알다. 人間은 政治的動物이란말은 너머나 普遍化된 말가트나 正當한 말임에는

잘떼업는 잘고대이겟지. 허나이런것은 스모─든것은 現實이다. 現實이니까 肯定하라 肯定해서 또肯定해서 참을수업거든 늬대처럼 壯嚴히 죽으라는 누구의 詩가내 머리속에 번개처럼 빗난다. 眞實로 그러한 늬대의 죽엄은 매 獨壯嚴한다고 만해야 올흘까?

幻滅의 悲哀와 語句는 絶對不可分의 關係를 가진말인것 같다. 幻滅을 느끼는 것은 그自身의 愚劣함 때문인가? 그러나 幻滅의 悲哀를 느끼지라도 그 幻影이 업서지기 前은 幸福스러울것이지? 幻影 조차 만들려는者는 不幸을 우리 는 안다.

眞實로 이땅에는 우리에게 더

무나만흔 課題를 賦擴시키는 것도 잇다. 그러나 남달은 環境에서 眞理를 차즈려는 우리가 아니엿든가? 幸福스러우면서도 그 反面에 不幸한 學生이라고 生覺하는 것은 謬謬일까? 先輩의 訓導와 激勵 속에서 父兄의 피와 땀으로 우리는 眞理의 探究의 길을 거닐엇다. 象牙塔이 람시고 조그마 한을 안에서 헤매엿든 게 다가 그다지 誠實치 못하엿든 내 自身을 自失하고 도 십다. 敎育도 文化도 重要하겟지. 우리를 길러준 모─든大衆을 爲하야 미칠수 잇는限 무엇인가 가피 보자. 그리하야 우리는 報恩의 法悅속에서 사려 보자.

이것은 우리가 가질수 잇는 조그마하나마 한개의 決心임에는 틀림업겟지만 허나 살지 안흘면 아니될 우리는 生活手段을 어드려 努力하여 이내 絶望만을 만드러 버리다. 이 까닭이 直接的인問題가 解決되지 못한다는 反省의 쳇 직과 새로운 懷疑속에서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지날뿐이다.

眞理가 무엇인가를 어렴프시나마 바라볼수 잇는 우리가 敗北할수업는 無氣力한 所致일까? 코펠니쿠스의 밥을 가는 우리에게는 必然的인 運命인지? 이마음은 至極히 슬슬하다. 딱한치재 잣업는 者의 單純한 슬픔보다는 더 深刻하다겟지. 社會는 우리에게 만흔 鬪爭을 要求하면서 우리를 주지안노니 이것은 矛盾이지. 우리의 不徹底한 모 순인지? 文化敎育! 그리고 現實! 이속에서 우리가 歸結 할수잇는 것은 무엇이냐?

現實은 錯誤의 悲哀가 사모친다. 數日前에 한 一人의 나에게 一靑의 詩를 읽어주웟다. 蘋口大學作의 한 섯지의 파리한 거신데 내다섯지 피리로 사람들은 춤추지 안노니 차라리 우리는 斷念하자는 뜻의 詩엿다. 그러나 우리는 다섯지피 리나 마 불어 보기 도 前에 이노래를 가슴에 안어야 하는지? 그러치안코 면 이社會는 完全한 飽和狀態에 잇서 우리따위는 벌서 必要치 안흔지?

三月은가까워온다. 敎育은 우리를 사 동무가 지금도 下宿房에서 또는 거리의 雜踏속에서 漠然한 恐怖속 에 조마조마 하고 잇지 안나? 그들의 蒼白한 얼굴에서 그 야 昨年에 그려인 속에서 나는 醜惡한 自己 活속에서 幸福은 안개 처럼 슬어

다. 幸福은 아침에 눈을뜰 그 瞬間이 아니잇는지? 그러나 그속에 苦悶은 潛在하여 눈꺼풀이 떠일때 그苦痛도 뒤여나오는지? 요사이의 生活은 졸업처럼 苦悶하고 恐怖와 한편의 輕蔑과 그러면서 도 치밀어 오르는 情熱에 漠然히 人生을 生覺하고 때로 지울 수 잇는 것은 長歎息뿐이다.

生以前의 無限한 暗黑과 死以後의 無限한 暗黑과 그사이의 한줄기 明明한 線 그것이 내 생이 아닌가. 宇宙의 無限大에 比하면 개 아미처럼 조그마한 瞬間의 生이 더 價値잇는 生을 圖謀하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일까? 終生夢死가 魅力을 가질 至極히 도 當연한 世代도 잇 것나? 모─든것을 拒否하는 世代에 拒否當하는者의 갈길은 어 ─ 듸

입까?

차라리 三月이 빨리와 버리면! 이 끄님업는 煩悶은 무엇이가 解決지켓지. 人生에게는 반드시 돌코갈길이 잇스리라. 이무서운 絶望의 彼岸에는 그래도 삶의 길이 빗나겟지. 나에게는 다만한개의 悲壯한 힘 이 必要하다. 그悲壯한 힘을 차즈러 巡禮하고 잇는 것이 現在의 나의 모습이 것가다. 새로운 把握으로 서 새로운 出發을 企圖하는 苦悶 內의 鬪爭이 것이 解決 된는 날 나의 새로 운 人間으로서의 再出發일것이다.

오늘도 하날 놀차고도는 희구름만 둘 나는 보왓노니 이 마음에 안개 는 도피여오른다. 來日아침에도 눈이 나려서 그우에 해는 아름답게 비초이리니 마음에 해는 언제 빗치오 노 ? (곳)

科學
生命의 秘密 (三)
父母가 업서도 生物을 創造한다。

過去數十年에 百한 研究에 依하야 細胞에 關한 必要한 智識을 獲得하엿다 細胞의 單位 가 어떠·바꾸어 말하면 分裂하는 것도 알엇다. 細胞中에 잇서서 遺傳的特性을 傳하는 遺傳의 實用體하는 絲狀의 染色體에 對하야서도 研究가 進行되엇다 一個의 染色體가 數分子보다 좀큰 遺傳素를 數千個를 保有하고 잇다는 것도 發見되엇다 一吋의 기리를 「아메리카」의 東岸에서부터 西岸까지 卽 三千哩의 기리로 잡아늘 린다는 것을 想像해보라

이와 가튼 比例로 延長식혀 본다고 하드래도 一個의 染色體는 百 吋의 기리에도 達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無限小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處理하는 專門學者가 精密히 再出되는 生物의 要素가 性이 어디서생기는 것이는 또는 人間의性質이 明快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明確히 決定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數週前에 「뉴─욕」州 「이사가」의 유─넬大學에 잇든 바─바라·맛 크린톡 女史는 그의 重要한 發見에 對한 報告를 發表하고 잇다 彼女는 細胞의 分裂에 關한 染色體의 製造에 當해서 原形質中의 顯微鏡下에서 겨우 보이는 微點이 劇 的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發表한 彼女 는 다시 最近의 研究에서 彼女 는 이 點을 寫眞으로 撮影하는데 에 成功하엿다 彼女는 이點은 「成功」의 染色體에 結合이라고 엇고 잇 스나 그 成功完成의 方式은 未知이다.

◇

예비가 어디서도 나는 말 이것도 細胞의 研究에 依해서 거가운 將來에 成功할 實驗의 하나이다 「마사츄 셋츠」州 「캠브릿지」의 「하─바─드」大學에서 「그레고리─·핑 카스」博士는 이 實驗과 가튼 事實 에 對해서 研究를 進行하고 잇다 數 周에 日한 實驗에서 「핑카스」博士 는 雌토끼로부터 卵을 摘出하야 化 學物質에 依해서 受胎식히고 이것 을 다른 雌토끼에 너허서 胎兒를 어 데다 어느 經過에서는 이 受胎는 알 열다 씨 의 十二度도 띄고 잇는 뜻 한 것이다.

「마사츄셋츠」州 「우스트─」에 서 研究하엿다고 한다 「우쓰트─」 은 의 슴 보 한 것 은 하─버─드 大學 의 一人의 女博士이다 「핑카스」博士의 生物學研究 所 에서 「마사츄 셋츠」州의 研究室에서 發 見된 것 이다. 彼 女 는 實 驗 에서 一 番 으로 進 行 식혀 成功 하엿 다. 生物을 만드는데 成功 하 고 잇 다 뿐 만 이 아니 라 卵 을 取出하야 二 ─ 成功 한 女 의 力量 으로 一 般 의 形 을 가 진 것 을 이 것 은 化 學 物 質 에 依 해 서 受 胎 식 히 고 그 卵 을 半 分 에 分 割 식 혀 진 細 胞 的 生 命 에 依 해 서 受 精 하 야 따 라 서 海 水 中 에 保 存 해 둔 바 이 아 니 한 部 分 만 을 雌 에 부 터 生 命 을 가 지 고 雄 은 업 시 卵 이 나 온 片 은 마 치 生 物 이 되 엿 다 卽 父 母 도 업 는 生 物 이 여 기 에 낫 다 는 것 이 다.

◇

「와싱톤」의 米國農務省의 研究所에서는 「프랑크·且·사─츠」博士가 植物의 細胞와 葉綠素에 對해서 研究하고잇다。 葉綠素는 太陽光線의 形態에서의 「에네르기─」를 입사귀의 色素인 形의 物質로 變化식히는 것으로 「샤─」

博士는 이 生物의 研究에 잇서서 「토─」· 植物의 生命과 그 生命에 共通한 中에 잇는 植物의 生命의 神秘의 探求에 必要한 것이라고 미더지고 잇다。

이러한 研究로서 「카네기」 研究所의 「D·T·맛크도─갈」 博士는 「아리조나」州 「탁손」에서 異味잇는 實驗을 行하엿다。 博士는 細胞核의 「칼실」과 「콜로이드」 溶液 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서 流動體 를 가지고 「칼실」을 混合物에 添加해서 適當한 濃度로 調製한 體性의 流動體를 만들어 하엿다。이 人工 細胞는 이것을 中數日間에 目하야 그 이 生物의 性質을 保存하기를 마치 動物 植物의 細胞가 「알카리」 性의 血液의 流動 中에 잇서서 酸性을 保存하는 것 과가 다。 그리고 「맛크도─갈」博士 는 이 人工細胞가 土壤의 溶液中에 잇슬때 植物의 뿌리가 가튼 環境에서 行하는 바와 가티 「나트

륨이든지 그─ 「밥」의 中國의 學 者가 研究하는 바와 가티 植物과 生物 의 聯關에서 生命 의 眞相 을 이─ 取하엿다고 하는 것 이다.

◇

이외에 「카네기─」博士는 「칼리포르니아」州의 植物生命의 研究 所에서 細胞의 構造와 植物의 構造 와 그─ 생 成하는 것을 實驗 하고 잇다. 이 人工細胞는 生命을 가진 細胞 와 가티 呼吸하고 또 酸素 및 炭酸 가스 를 吸收해서 이것을 結合해서 二酸化炭素를 만들고 잇다.

上述한바와가티 研究를 하는 것 이다 實驗에 依해서 生命의 神秘를 探究하고 잇다. 생명의 ─ 원인은 ─ 業 들 과 혹 은 이 에 없 는 것 에 ─ 完成 되는 때 기는 이것이 自然科學 者가 이 原子와 그 神秘의 속에서 一步一步 接近하고 잇는 생 명과 學 者 는 細胞의 生命의 수수께끼에 研究를 進하고 잇는 것이다 最近數個月間에 잇서서 生物學者의 研究의 成果는 永久한동안 探求되여오든 問題 에 새로운 希望을 주는것이다

今春 各學校入學規定 ⑥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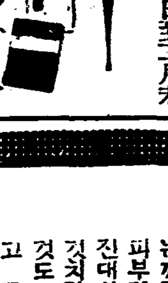
全州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末日 ▲試驗日字 三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大邱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農業科五十名 林業科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廿五日 ▲試驗日字 三月十一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春川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二十日 ▲試驗日字 自三月五日至三月九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朝鮮語、理科、國史、地理

春川公立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十五日 ▲試驗日字 三月十一日

朝鮮總督府濟生院
▲募集人員 約七十名 ▲申請期日 自一月一日至二月末日 ▲試驗科目 國語、算術 ▲試驗場所 同校



口頭試問 問答練習材料 (九)
—(漢洞公立普通學校)—
金 宗 奎

△食物ガロニ入リ體外ニ排泄サレルマデノ時間ハ何程カ。
▲凡ソ二、三十時間ヲ要シマス。
△動脈ト靜脈トハ
▲血液ガ心臟カラ出テ行ク血管ヲ動脈トイヒ歸ッテ來ル血管ヲ靜脈トイヒマス
△傷口ヨリ心臟ニ近イ部分ヲ布ナドデシッカリ縛メ、ツテ鼓動ノ鎭靜ヲ待ツトヨガ肝要デス。
△動脈ヲ負傷シタ場合ニハドウシタラヨイカ。
△心臟ハドンナ役目ヲスルカ。
▲心臟ハタエズ收縮運動ヲシテ全身ノ血液循環ヲサセル働ヲシマス。
△脈搏ハ一分間イクラ位イデスカ
▲七十二回位デス
△普通人ノ呼吸ハ一分間ドレ程デスカ
▲十八回位デス
△心臟ハドコニアリマスカ
▲左ノ乳ノ下ニアリマス
△腎臟ハドコニアッテドンナ役目ヲシマスカ
▲腹腔ノ後側ニアッテ血液中ノ不用物ヲ濾シ取リ體外ニ排泄スル働ヲシマス
△尿ノ成分ハ
▲水ノ成分ノ他食鹽、尿素、尿酸等デス
△汗ノ成分ハ
▲水ノ成分ノ他食鹽、尿素等デス
△人間ノ皮膚ハドンナ働キヲシマスカ
▲身體ノ保護、汗ノ排泄、體溫ノ調節、感覺ナドノ働ガアリマス
△寒イ時小便ノ多ク出ルワケ
▲皮膚ノ汗ノ排○ガ少イタメデス
△皮膚ノ疾病ニハ
▲凍傷、疥癬、丹毒、破傷風等ガアリマス
△大腦ハドンナ役目ヲシマスカ
▲物事ヲ知ッタリ、記憶シタリ考ヘタリスル働ヲシマス
△小腦ハドンナ役目ヲシマスカ
▲運動ノ調節、身體ノ平衡ヲ保ツ働ヲシマス
△延髓ハドンナ役目ヲシマスカ
▲呼吸運動、心臟ノ運動、胃液ノ分泌等ヲ調節スル働ヲシマス。
△肥料ノ三大要素ハ何デスカ
▲窒素、燐酸、加里等デス。
△植物ノ同化作用トハ
▲植物ガ日光ノ力デ空氣中ノ炭酸ガスト根カラノボッテクル水ヲ澱粉ヤ糖類ニスル作用ヲイフノデス。
△榮養素ヲ六ツアゲナサイ。
▲含水炭素、蛋白質、脂肪、ビタミン、食鹽、水等デス。
△消毒法ヲ四ツアゲナサイ。
▲日光消毒、熱氣消毒、藥劑消毒、燒却消毒等ガアリマス。
△消毒藥名ヲ五ッ言ヒナサイ。
▲クレゾール石鹼液、石炭酸、昇汞、ホルマリン、生石灰等デス
△水、蔬菜果物ノ消毒ニハドンナ藥ヲ使ヒマスカ
▲晒粉(サラシコ)(クロールカルキ)ヲ用ヒマス。

▲朝鮮農會幹旋通報 一月二十日號(每月一回發行)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幹旋部 振替京城三○二三番 定價一部六錢
▲前線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天道敎靑年會本部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一部三錢
▲萬博 正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有樂町一ノ二 日本萬國博覽協會 定價一部十錢
▲佛敎靈驗實錄 (佛敎野談資料二百種) 安震湖篇 上篇 宜報記 中篇 金剛靈驗 獲長壽得回生 愈疾病 救殺戮 脫枷鎖 免水火 消罪報 感神靈 臨終瑞 生淨土 下篇 誦觀音等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八 卍商會 定價六十錢 送料六錢 振替京城一二三六三番
▲月刊 ロシヤ 二月號 第八回소비에트大會演說集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八番 定價三十五錢 送料一錢(附錄)소聯邦新憲法(全文)
▲예수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下水口里九○番地 예수교회中央宣道院 振替京城一二五六五番 每月一回發行 定價一部十二錢

사람의 인정으로 어여뿐것 깨끗한것을조화하며 사랑을더할때에도 먼저 모양보다 얼굴을 치여다보게됩니다 물론 어느분이나 갓낫슬때에는 어엽뿐자체와 고흔 살결을타고나왓스나 오늘날까지 그와가튼 어엽뿜을 보존하고 계신분이 몃분이나 계십니가!

그러므로 혼이 날들이 모도한다고 다가티 얼굴을 희게하라고 분(白粉)크림, 을 하서서 일시적화장을 하시고계시나 이것은 그 당시뿐이지 조곰만지내면 오히려 아니발으신것만도 못하게되고 그살결은바탕은 점점 더 욕흡하게될것이니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게실줄밋습니다。

왜 그러냐하며 살결이 거문것은 피부의세포에 색소층(色素層)이 생기잇는까닭이며 살결이 거칠거나 얼골에 무엇이모도생기거나 주름이젭피는것은 피부면에 병균이붓흣든가 혹은 피부영양(養)이 충분치못하든가 피부의신진대사가능이 충분치못한까닭에 그런것이니 그런원인을 그대로두시고 다만 겟치장만하시니가 그럿케 아모리조흔화장품을 발느서도 살결이 거칠어진것도 낫지안코 버짐, 죽은깨, 여드름이 그대로잇스며 살결도 본바탕으로 히고 곱게되지안을것입니다。

活 고로이 유황을 특수피부淸白영양료와가티 약용화장용에성공한 레온洗顔크림으로 하로에 두번三四分치료면 효과를 어들수잇슴니다

그러면 어떠케하면 조흐냐하면 활성(活性) 고로이도유황(硫黃)의 미백소균작용(美白消菌作用)으로 근본료법이 된다는것이 구미각국미용계에서 승인되고 잇스니·즉 『레온洗顔크림』으로 곳치시면 단지일안에 근본료법이 됩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사용할수잇스니 하로에 두번식 三四分치료에 약용이될뿐만아니라 화장이됩니다

처녀시대…명랑한 신녀성의 생기와 청춘의 꿈을 어엽분 얼골에서 찾기위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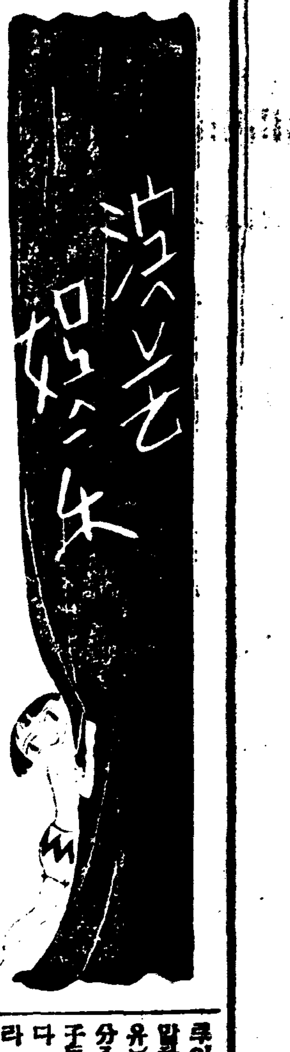
가정부인…시부모 남편시중에 골몰하시는 사이에도 간단히 집에서 사용할수잇스므로 늘 고흔얼골는 애교와 매력이발휘되어 평화한가정을 일울수잇스며

직업부인…직업상 허는수업시 매일화장을하시게되어 분때와 연독(鉛毒)으로 고통밧으시는분은 분에겨른피부를 청백하게하고 연독을 排泄키위하야

여드름·버짐·죽은깨·기미로 고생하시는분이나 살결이 거칠고 잔주름이 만흐며 얼골색이 거문분은 주저마시고 레온洗顔크림으로 고처서자기만이가질수잇는 어여뿐자태를 차저주십시요

—정가—普通瓶一圓四十錢、徳用瓶三圓四十錢 전도 유명한 약방, 화장품점에서 판매합니다마는 매절되엇을때에는 송료우편절을 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보내드립니다。

통지하시는대로 조선어분등으로된 『신가정미안료법』이란책을 거저 보내드립니다。



스타ー들의 하기어려운말 아이·러브·유

【허리웃드新聞盟】『허리웃드』銀幕의『스타ー』들이 제일하기어려운말이 무엇이면 하는데 모다『아이·러브·유』(나는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고 대답하는것은 실로 우수운일이다。

가령例를들면『죠ー지·브렌드』君은 이러케 말한다。『사랑에 불타는눈이라되지 목소리라든지 더구나 벵벵도는『카메라』아페서 撮影가튼것을『스크린』에 記錄이 되는것이니까일이매우簡單하지마는『아이·러브·유』라는말을하면서 實感을 낸다는것은 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딕크·포ー엘』君은 이러케 말한다。『戀人끼리서로『아이·러ー브·유』라는것은 아모어색한點이업시 잘할수잇는데 여러사람아페서 이러한말을 하는것은여간어렵지가 안타。그럼으로 팬諸君의想像으로서는 到底히 미치지못할만큼 우리는 이말을 자연스럽게하려고 애를쓴다。』

그리고 最近『죠안·브론데루』女優들을 代表해서『아나라·루이제』嬢은 엄청을 불러가면서 말하기를『男性이『아이·러ー브·유』를 못는것은 매우 氣分조흔일입니다。그러나 大概男子들은 이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그것은 스크린에서만 아니라 저들이『아이、러ー브、유』할때도 그것이퍽어색하고 맛지못해 걸려서잘나오지 안는것갓습니다 이러한때문에 幸福스러운 結婚이되지못하는수가 얼마라도 잇지안습니까? 그러나우리는 그러한 境遇를만나면 아주잘합니다』

그러나『로ー스、알렉산다ー』嬢은 반드시『루이제』와同意見은아니여서『모든것이 名俳優가 되려면 電話로서라도 그氣分이잘通하도록말을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라고 豪言壯談

五夢女 合評

一、脚色에對하야

朴 그러시다면 우리들의씨나리오·라이터ー 이신 光麟氏께서 먼저말슴해주십시요。

徐 安夕影氏도게신데 웨何必나를 몬저 처드십니까?。

金 뭐ー先後를차저서 뭘하시겟습니까? 光麟氏가 몬저말슴낫스니 어서 말해주십시요。

徐 이번에 羅雲奎氏가『五夢女』를 脚色한데잇서서 成功한點은人物을살게쓴것이라고 봅니다。

安 이번『五夢女』의 脚色에잇서서는 深重히 考慮한點이 만혓다고봅니다。

金 左右間 나는 五夢女라는 處女를 세男子가 사랑하는데잇서서 그葛藤이 생기는 場面을各各세男子가 좀더 別달은手段으로 事件을 展開시키엇드라면?하는생각도 아조업지 안엇습니다。

徐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느낌을가지게하는 그것은 生鮮이 무엇때문에 땅우에 떠러젓는가?하는것인바 우리가보아도 얼는解得하기가 어려운데 觀客들이보와서는 더욱이 상히 생각하겟는군요。

洪 나도 퍽 이상하게 생각햇습니다。 그것은 아마 生鮮을누가 훔처간것을 暗示한것가튼데 그러한씨ー ᆫ(場面)은映畵를 間或接觸할 우리로서도얼는보와서는 잘理解할수가업겟는걸요。

金幽 羅雲奎氏의過去에 만들어진作品들을보면 거이다 氏自身의 原作脚色監督으로된것이고 感心할바업섯다고해도 過言이아니엿스나 이번『五夢女』를通해서본다면 昨日의脚色法과今日의脚色術은 天壤의差가잇서서 지금까지에 어더볼수업는奇拔한 새로운手法을發見할수가잇섯습니다

朴 저亦是 氏의進步된脚色手法에잇서서는 如干 嘆服하는바가아닙니다 그런데 時計의針이 발투정을 크로스·업으로갈으켯슬그때에까지 북울리는소래가 들린다는것은 脚色者의失手인가 생각합니다

安 그러면 다음은 監督에잇서서 느끼신바를 어느분이든지몬저 말슴해주십시요

三、監督에對하야

徐 그다지 험잡을곳은 업다고봅니다만 오바랩과컷트빽에잇서서는 좀거치러운편이라고할까요。

金 羅雲奎氏가 監督만한映畵로서는『五夢女』外로『江건너마을』이 잇지요?。

徐 何如튼 羅雲奎氏는 多方面的手腕을 所持한 才操잇는映畵人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正 나는 京城撮影所에 갓다가『五夢女』의 셋트를 參觀하게되엿는데 氏의熱誠에는 아니놀래지못햇습니다。 市場場面을撮影하는데 몃번씩이나 되푸리하는지 全員들도 쩔쩔매든군요。

金 『五夢女』에出演한 金一海君의말을 通해서 들으면 如干努力한것이 아니라고 끄리든군요。

興 映畵全體를 通해서 氣分이通一되엿다고는 볼수업지요

徐 羅雲奎氏의作品은 大槪가 朝鮮味가석겻다고봅니다 그러나 그대신에 좀거치러운편이라고 말할까요

朴 그러치요 좀거치러운편이라고 볼수잇지요

金正 그런데 타이틀(字幕)이끗난다음에 撮影所의마ー크가나오는것을보앗는데 果然! 그것이 몬타쥬의失敗인지는 몰으나 나는퍽ー크게理解하고시펏습니다 다시말하자면羅氏가 映畵製作에잇서서 어데까지든지 藝術家的態度로 일부러商號를나중에『とうす』하엿다는것으로 解釋하고십습니다

金幽 監督術法에잇서서도 羅雲奎氏의作品들을 만히보와지만이번 [illegible]에서는 우리로서 생각지못한 奇妙한곳이만흔것을 發見할수가잇습니다

徐 江邊에서 세사람이 함께만나서 노는씨ー ᆫ가튼것은 퍽잘되엿든군요。

安 그러한 씬는 잘못하면오히려 보는사람의 氣分을傷하게해주는데 조금도 더러워보이지안코 보는사람에게 조흔늣김을 주어슬뿐만아니라 라스트·씬에 배타고 가는場面가튼것은 퍽 조케 보앗습니다。

金正 아리랑時代에서ー江건너마을 江건너마을에서ー아리랑第三篇ー이러한것에 比해서 이번『五夢女』에잇서서의 監督術은 進步될대로 進步되엿다고 봅니다。

金幽 『커트빽』에잇서서 좀더細密한 注意를 해주엇스면 험잡을데업는 한사람의 撮影監督이라고생각합니다。

徐 映畵『江건너마을』에서는 참으로『マジメ』햇섯서……그러치만 이번『五夢女』에서는 참으로 健實햇다고 나는생각합니다。

洪 내가보기에는『센치한씨ー ᆫ』이 너무만타고 생각합니다。

金幽 이번『五夢女』에서는 話術을너무나 省略하려고 애쓴곳이 오히려 失敗했다고봅니다

洪 映畵에『센치한씨ー ᆫ』이 업서도 안되지만 될수잇스면 좀더『유모어』하게 만드는것이 조흐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正 이번『五夢女』에는 會話的『렉크닉』이 적은것가튼데 더구나 로ー키에잇서서는 會話的技巧가 第一必要하다고 봅니다。

徐 이번에『五夢女』가 좀더成功하려면『푸로로그』가잇섯스면 조왓스리라고 봅니다

金幽 그런데 이번映畵에 人物紹介가 조와다고 생각하는데요

安 俳優選擇에는 그다지 不滿이업섯스나 音樂에잇서서는뒤떠러진點이 업지안흔군요。

金奎 海邊에서 五夢女를 끼고 노는것은 너무나 不自然스럽다고 나는생각합니다。

朴 그러한씨ー ᆫ은 흔히 外國映畵에서 어더볼수잇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奎 좀더다른手法을 써스면 하는생각도 업지안허요。

洪 羅雲奎氏이번監督만은 퍽에 썻다고 나는봅니다。

徐 그런데 장님이 꼿꼿에 열쇠를 채엿는데 열쇠이아니고 미다지문그대로 보이는곳은큰 失手이든군요。

安 나도 그러케 생각하는데이러한點에 注意가 모자라는것은 監督者의 큰失手라고 아니볼수업습니다。

洪 시골에는 미다지가업고 덧문뿐인데 덧문으로 그림자를 비치도록 햇섯드라면 조왓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幽 그런데 이번에 가위신세를 만히진모양갓든군요。

金奎 그러면 撮影에 잇서서는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말슴을 해주십시요。

四、撮影에對하야

安。過去에比해본다면 李明雨氏의撮影術法은 進步될대로 進步되엿다고 생각합니다。

金幽。안인게아니라 李明雨氏의 撮影術法은 참으로 놀낼만큼 發展되엿다고 봅니다。

朴。明雨氏는錄音術法까지도 달은技師에게 지지안는다고 하는말을 들엇습니다만 이번『五夢女』에잇서서 그撮影術法만은 外國技師와억개를 겻울만한 숨은天才를 發見할수가 넉넉하다고생각합니다。

安。이번『五夢女』의撮影은 立體的으로되엿다고 봅니다。

金幽 이번作品에도 晝夜의分別을 하기가 어려워잇는데 그것은 設備가不良한 朝鮮에서는 할수업는 한製作者의悲哀올시다。

安 이번『로케이숀』에잇서서 李明雨氏의 進步된實力을 차저볼수가 넉넉햇습니다。

金 撮影엔처음 海金剛海邊이나

다날때 果然撤廢的이엇고 아랑에 比하야적은 아랑이라고 도보기에 문하엿습니다 그러나 五夢女가 장님의등을두들기는場面을볼때에 비친그림자로 한층그로틱한 무엇을보인것이 잇는데 거게서카메라移動한時 人物두사람이나타날때는 그그림자가 全혀房바닥에 비치고 말엇스니…원…(笑聲)

寫眞은 五夢女의 한場面

라디오

二十九日(金曜)

◇午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五)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講演 金斗憲
◇同八時 (東) 비이올린獨奏
一、西班牙交響曲中에서……라르作曲
二、세레나ー데……슈ー버ー트作曲 엘만編曲
미샤·엘만 피아노伴奏 우라데이밀ー·파도빠
◇同八時四十分 豊年歌外 一、豊年歌 二、노들江邊 三、방아타령 四、금강산타령 權瓊蘭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九時 古談 張志浩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童話劇
◇同六時二十五分(東) 副業講座
◇同七時卅分(東) 講演
◇同八時(東) 바이올린
◇同八時四十分(大) 뮤지칼·드라마

三〇日(土曜)

◇午後〇時五分 報念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金玉花 鄭柳色
◇同一時一五分 副業講座(五)共同育兒 成周復
◇同六時 어린이科學『飛行機이야기』 趙炳俊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五)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 咸尙勳
◇同八時 (平)流行歌
一、富寧淸津(申) 二、흐르는浮萍草(李) 三、故鄕이그리워(申) 四、꿈의上海(李) 五、行船曲(申) 六、저꿈이꿈(李) 七、追憶의亡동자(申)
申基溢 李英子 伴奏 平壤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길군악 二、白鷗詞 金鳳仙 盧錦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映畵이야기 奇蹟의人間 李承雨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常磐津
◇同六時 (城)DK어린이이야기大會 櫻井小學校兒童
◇同六時二五分 (城)副業講座製炭 飛永庄次
◇同七時三〇分 (大)管絃樂 大阪放送交響樂團
◇同八時 (大)漫談 松井翠聲 牧野狂兒郎
◇同九時 時事解說 杉狂兒

三十一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京)吹奏樂
一、喇叭鼓樂 埼玉縣川越商業學校喇叭鼓隊 指揮 石井佳良
二、吹奏樂 神奈川縣逗子開城中學振武隊 指揮 竹內勝之
◇同一時一五分 古談 李雲林
◇同六時 (東)名作物語『里見八犬傳』 AKコドモ會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五蘊空度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姜桂紅 鼓手 池龍九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懸賞라디오드라마當選作品發表= 〃傑作〃一場 ー田壽成作ー
ー配役ー 어머니……白銀姬 金哲氏(아들)……宋在魯 慶滋(딸)……朴圭道 朴英鎬(哲民의친구)……孟晩植 田愛順(慶滋의동무)……鄭惠淑 同人會 演出 申左鉉 效果 宋薰
◇同八時卅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자진배따라기 五、령변가 鄭琮善 金泰運
◇同九時 四重奏 四重奏曲K五一四番 C長調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 안단티노ー 第三樂章 알레그로아다지오 플류ー트 金載鎬 바이올린 安聖敎 비올라 崔虎永 첼로 本管伸光
◇同十時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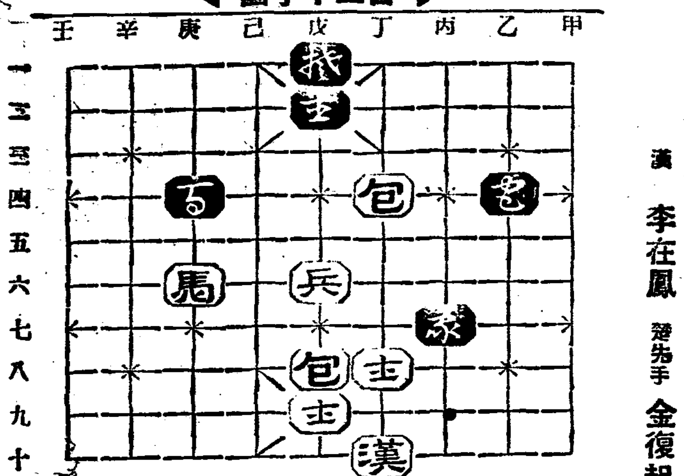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吹奏樂
◇同一時二〇分 (秋)俚謠
◇同六時 (東)名作物語
◇同六時二五分 産業ニュス
◇午後七時三〇分 (大)ニュス演藝
◇同八時 (東)長唄
◇同八時三〇分 歌謠曲
◇八時五〇分 (大)浪花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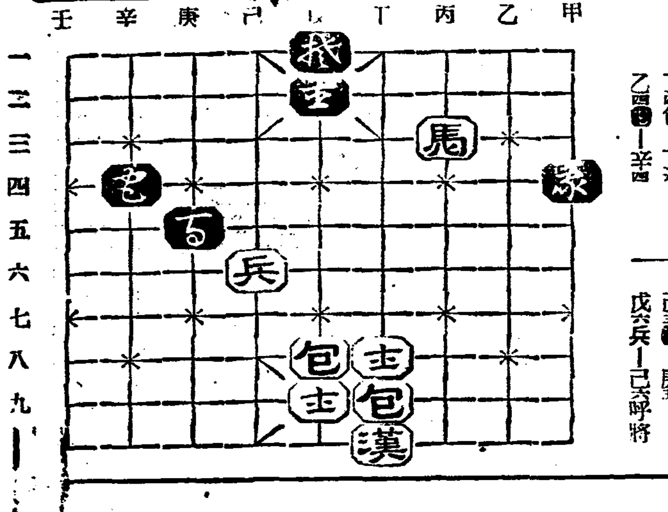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四十)

漢 李在鳳 楚先手 金復起

◀百三十手圖▶



◀百四十手圖▶



庚四[illegible]ー辛二
庚六馬ー己四
辛二[illegible]ー己三
丁四包ー丁九
乙四[illegible]ー辛四

己四馬ー丁五
丙七[illegible]ー甲四
丁五馬ー丙三
己三[illegible]ー庚三
戊六兵ー己六呼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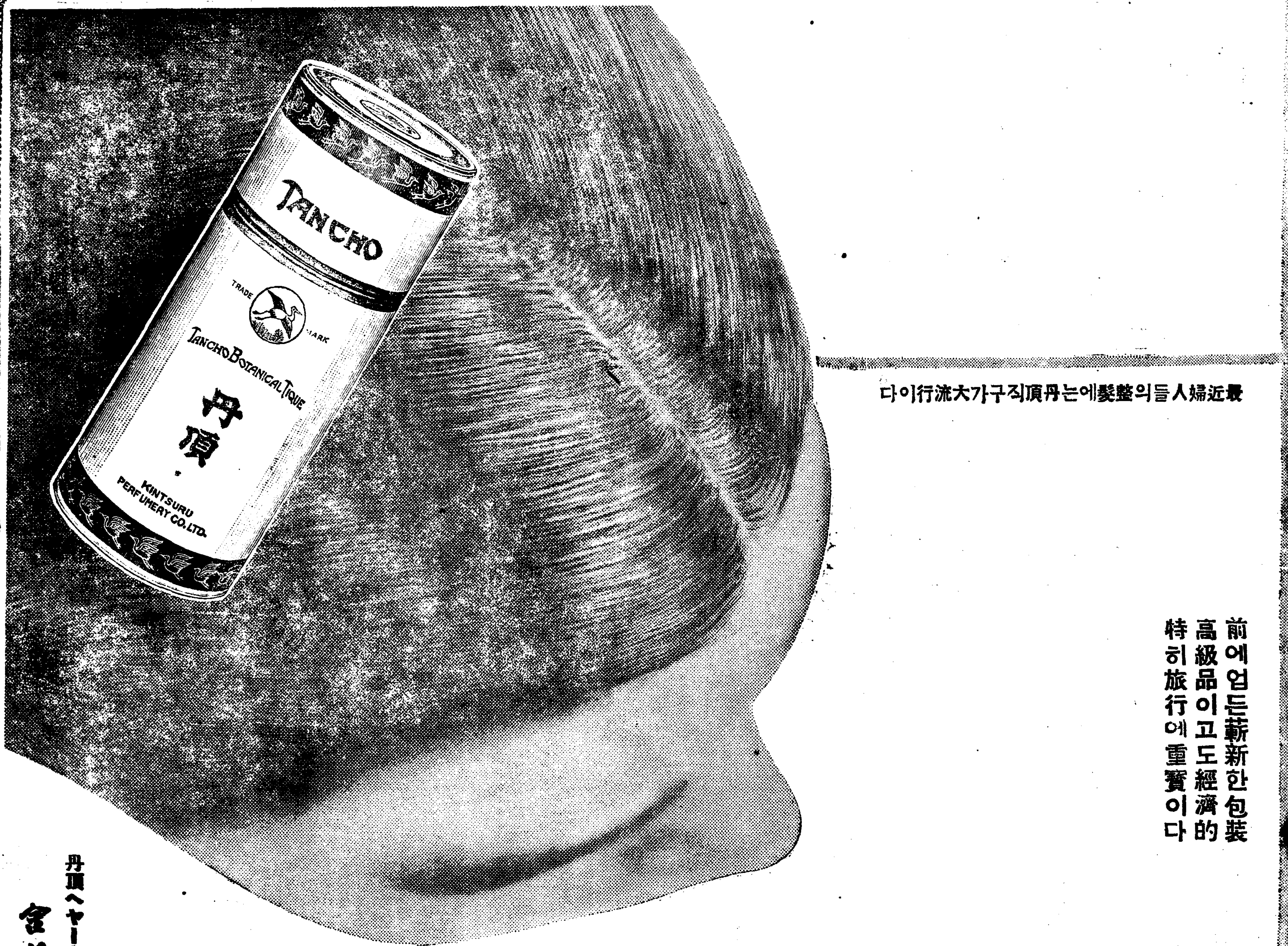
九十九%가 純植物性 이다

最近婦人들의整髮에는丹頂직구가大流行이다

一、丹頂직구의主體는純粹度九十九%가純良한植物油다。이기름은毛幹에浸透가잘되여毛髮을조케하며、毛切裂毛를防止하야머리속부터光澤을준다。
一、本品은專賣特許의獨特한操作으로써製出한바그組成中에『ポリリシノレイン酸グリセライド』라하는 强한粘力과물을吸收하야乳化한性質이잇는기름을 含有하얏슴으로整髮의効果와洗髮容易한特徵이倍加될것이며 또適當하게지탕할수잇다
一、丹頂직구獨特한芳香은金鶴香水에エッセンス가加味되엿슴으로、氣分을爽快하게하고 生活을明朗하게한다
一、丹頂에는 頭皮及毛根의 生機作用에絕對必要한特殊『リポイド』의 數種을合理的으로 配合하엿슴으로生育을促進하는 効果가잇다

前에업든嶄新한包裝
高級品이고도經濟的
特히旅行에重寶이다

파리ー製를凌駕



丹頂チック
구 직

丹頂ヘヤートリン發賣元
金鶴香水株式會社製品

¥ .50 .75 1.20 各百貨店·藥店·化粧品店에잇슴

學齡兒童廿萬에 就學率不過二割

江原道의 十年計畫으로 初等校擴充 完成後면總六割就學可能

初等敎育案

【春川】강원도(江原道)에서는소화사년이래 계획중이든 일면일교제도가이미완성되고 각야학교증설등 초등교육기관확충에 힘쓰고잇스나 학령아동이십만이천명중 사만칠천명이 겨우취학을 해서 취학률은 겨우 이할사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어지칠할륙부의 아동은 전부수용할곳이업스므로 도당국에서는 십개년확충계획을 세우고 십년후에는 륙할가량의 취학률을 내일예정인데 그중에도 특히 간이학교에 주력을할모양이다

府行政區域擴張은 道議選擧以後에

面議選擧權失格防止로

【平壤】시가지계획실시구역을기조로 수립된 평양부의 제이차행정구역확장은 준비가 완료되여 아프로 협찬을 기다릴뿐인데 면적(面積)에 잇서서는 현재의 삼배강 인구(人口)는 이십만을 돌파하기로되엿다 부당국에서는 연도초인사월일일부터 편입구역을 평양부라고 [illegible] 오월십일 도회의원의 선거가잇는 관계상 실시는 선거이후로 될모양이다 그 리유는 선거전에 실시하면 편입면의 면협의원중에서 선거권을 실격하게되는동시에 인구조사의 복잡한수속이 개재하므로 도당국으로서 선거전의 부의팽창에 대하여 찬의를 표치안는관계로 부로서는 연기하기로되엿다

作權爭奪하려다 逢變한區長

【廣梁灣】남의소작권을탈할하려다가 소작인들에게 봉변을한구장이잇다——평남룡강군해운면궁산리(平南龍岡郡海雲面弓山里)에는 진남포비석리(鎭南浦碑石里)림윤옥(林允玉)씨의 토지가 잇는바 그토지를 소화구년 시월이십일에동리최성덕(崔成德) 황룡천(黃龍川)리한용(李漢鏞)외 아홉명이 삼년기한으로 소작계약을하고 소작을하여오든바 작년십이월에 그토지를 진남포비석리(鎭南浦碑石里)리재성(李在成)이가매수하엿는데 이기회를리용하여 그동리구장리모(李某)는 소작료를 이할이나 인상하여가지고 소작권을 자기가 다빼아서가려하자 이사실을안 소작인열두명은 생명선인 소작권을 빼앗길가하야 지난이십이일 지주리씨가 룡강온정일신려관에 와잇는것을 대포소작인 세명이가서 이때마침 와잇는 구장리모를 맛나가지고 옥신각신말다툼끄테 구장리모를 따려서 일시소동을 일으켯다 이사실을 안해운면장(海雲面長)김태홍(金泰弘)씨가 만류시켜전기지주를 불러다가 권고하여전소작인들에게 다시소작을 하게하엿다고한다

大邱職業學校新設費 二部經濟支出拒絶

緊急職員懇談會서

【大邱】경상북도에서는래년도에 대구부내에 도립대구직업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대구부의 제이부 특별경제로써 경영중인 공업보습학교의 부지(敷地)및교사(校舍)등의 시가 오만원과교사신축비로써 약삼만이천원의기부금을 자담하기로 부에요구하야 왓슴으로,부당국에서는 [illegible] 이부의원을 소집하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한바가 잇섯는데 신설비삼만이천원은 제이부 재정상으로보아서 도저히 부담할수업슴으로 일반부비로부터 기부하도록 만장일치로 부제안을 일축하엿다한다

特別議員人選

一般組合員注目

【巨濟】경남거제어업조합은 이십만원의기본금과 칠십여개소의어업권과 삼천여조합원을포옹하고잇는 전조선유일의 방대한조합이다 그런데 동조합은 몇사람의간부의 손에롱단(壟斷)되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위하야서의 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 그들의사리사복을채우는 기관에지나지못하므로 동조합은 필연의세로 조합원은 조합원의조합이니 악덕간부(惡德幹部)의 손으로부터탈환하여야한다는 반간부파(反幹部派)와 어대까지 현상유지를 고집하는 간부파와의대립을 보게되어 그들의 알륵과 반목은 날이갈사록 험악하여오든바 마춤내 반간부파는 유지조합원회를열고 간부파의 배임행위(背任行爲)를 적발하야한편으로는 도군당국에 진정서를제출하고 다른한편으로는 당지경찰서에 고발을제기하야 이래수개월을두고 엄중한취조를 거듭한후 일건서류는 통영검사국(統營檢事局)에송치되어 준엄한법률의심판을,바들날이 불원에잇다 항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간부파는 자파의 세력을부식하고저 이번의 특별의원임기만료를 기회로 그자리를 전부획득하기위하야 비밀리에 맹렬한활동을한다는데 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리익을 위하야 가장유효적절한 의견을 개진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인물이 특의(特議)에임명되어 파란중첩한조합의 확청을 위하야로력하여주기를바라고 도당국의 인선에대하야 만흔기대와 관심을가진다고한다

本報讀者慰安 白頭山映畵盛況

【扶餘】본보독자위안을 목적하야 개최한 백두산림협실사영화는 기보한바와가티 예정대로지난이십사일밤여덟시부터 공회당에서 조선의 성산인 백두산을 사진으로나마 볼려는 [illegible] 원근파처를 불고하고 정각전부터 쇄도하야 초만원을 [illegible] 백두산의 [illegible] 무사히 폐막하엿다

存廢의 岐路에선 平壤밋숭系三校

引繼交涉의 挫折徑路 (三)

숭실전문학교(崇專)를 필두로 숭중(崇中) 숭의(崇義)등 세학교가 갱생할수잇는 최호부동의 유력재단이 나섯슴에 불구하고 이재단을 반대하는 숭중분리운동(崇中分離運動)이 폭발한경위는 어떠한가?

조선장로회총회장인 리승길(李承吉)목사를 위시하여 변린서(邊麟瑞)장운경(張雲景)조택수(趙澤洙)정의경(鄭義慶) 리창호(李昌浩) 강병석(康炳奭) 김치근(金致根)홍린규(洪麟奎)씨등 현직장로목사들이 발기인이되는동시에 세학교경영위원세명중 한사람인 현숭실중학교장 정두현(鄭斗鉉)씨를맛나 인계수속 최종일에 조인을거절시키는일방 숭실중학교 학부형에게 다음과가튼 학부형회 소집통지를 발하엿든데 이통지서를 발송할때에 직원으로서도알지못한 직원이만허고 직접관계를가진 서무계(庶務係) 주임도 알지못하는 사이에 발송수속을밟엇다한다

◇學父兄會召集通知書

新年에 主鴻恩中貴體萬康하심을仰祝하나이다 敬陳者崇校問題에關하여 緊急히協議할事件이有하옵기로 左記와如히 學父兄會를開催코저 玆에案內하오니 幸須枉臨하시와 臨席하심을伏望하나이다

一、日時 一月十九日(火曜)午後七時

二、場所 崇實學校內

崇實學校學父兄會發起人 李承吉外八名 白

졸연히 이러한 통지서를바든 평양부내거주의 학부형들은 물론 백리, 이삼백리 바게잇는학부형들은나의 사랑하는 자제들의 신상에어떠한 불행이나 오지안홀가?하는 초조한 생각을가지고 이때여명이통지서에씨운 십구일오후일곱시에 숭실중학교 강당에로 모혀왓섯고 아모 영문도모르는 학부형들은발기인들의 입에서 무슨소리가 나아오나?하며 초조히가슴을태우고 잇섯다

정각이되자 리승길씨를 비롯하여 여러발기인들이 소정의좌석에 착석한후 리승길씨가 의장이 되여가지고다음과가튼 두가지조건을 의안으로 제출햇다

一、崇實中學校의 經營을 宣敎部會에서 存續하기를請願할것

二、宣敎部會에서 存續할수업스면 學父兄會에 經營權을引渡하라

는등가지 조건을 결의하려는것으로"스타ー트"를하엿고 경영위원중한사람인 정두현씨가 숭중은 분리경영하여야된다는 의미의보고를하엿스니 물론 경영위원회와 선교단실행위원회와의교섭전말중에서 끝자가되는 유력재단의 획득 인계수속조안작성에까지 진섭되엿든 내용가튼중요한 내용의 발표는 회피하엿든것이다

그래서 학부형들은 원체가백지(白紙)엿든 관계로 그럴드시 듯고 잇섯스나 그래도에 불만을가진 학부형중에서 선교사단과의 교섭전말을 비교적상세히 조사해가지고잇든 재료를 가지고 일일히 반박을 가하게되자 한장햇든 학부형들로서도 비로소 발기인회와 학교수뇌자 사이에 어떠한 흑막(黑幕)이잇는것을 간파햇고 이때문에 질문이 백출하야 장내는 긴장과 소요를 보히게되엿고 따라서교섭위원 세사람중 김동원(金東元)고한규(高漢奎)등 량씨의 교섭전말도 드러보자는 동의가제출되엿다

그러나 사회자인 리승길목사는 무엇을 직감햇슴인지 [illegible] 동의를 채결도 하지안코 교섭위원중 한사람인 정두현씨의 보고를 드른이상 다른위원의보고는 드를필요가 업다고 력설을하여 그태도에 구구함을 보혓섯스나 결국 회원들의 맹렬한 반대로 급기야 다른두위원의 보고를 듯기로되엿는데 학부형들은 이곳저곳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무서운가?하는고함소래가 이러낫다

교섭위원중 김동원씨는 전번에 발표한것과 가티 중일된재단미례서 숭실의 량교를 경영하기로 되엿고 선교사단실행부에서도 쌍수로 환영하여 최후적수속을 하려든 순간 정두현씨가 학부형회를 방패로 조인거절을하엿기때문에 반개년간의 고심참담햇든 교섭의결과는 성공을 한발거롬 압두고 만사휴의(萬事休矣)에 눈물 나는 결과를 지은것을 친절 정녕하게 설명햇고 고한규 위원도숭실분리운동의 대두때문에 교섭은 완전히 실패되엿다는사실을 지적한후 숭전 숭중 숭의의세학교는 교회단체나 신자(信者)에게는절대로 인계할수업다는 구절을계약서에 조목(條目)으로 너허야 계약을 하게다고 선교사단측에서 강경히 요구 하엿다는사실을 보고하여 요컨대 세학교의 경영권의 양도를 바들사람은 반다시 비교인(非敎人)에 국한 되엿다는것을 력설하여 숭중 분리운동 그자체가 일종의야심의일단(一端)에서 출발하여 아름답지 못하거니와 현직장로목사를 중심으로한 이단체에 인계는 곤난하지안켓느냐?고암시를 주엇다 이보고를 드른 학부형들은 여론이도로발기회측을공격하고 유파하여 장내는 극도로 분요타가 결국은 발기회에서 제출한 두가지의안은 즉각철회되고 학부형회로서는 경영위원을 절대지지하여야 로판비 대숭실의 실현을전력할것이라는 동의가성립되엿고 회장안에서는 『경영위원에게 사죄하라』는 고함이 이러낫다

사회자 리승길목사는 동의가 성립되엿슴에도 불구하고 동의채결을 하지안타가 회원의공격을맛나 동의를 두가지로난호아 채결을보게되여 학부형회로 소집햇든 발기인들은 사면초가의 결과로 막을나렷다 (續)

(平壤特派員 金晩禎)

臨迫한舊年末과各地强盜亂舞

林檎장수少年이 意外!强盜로豹變

女子를結縛코短刀로威脅타逃走 犯人은十八歲紅顔

【元山】구세말을압두고 경향각지에는 강도가 빈번한 이때 원산에도 강도사건이 발생하야 인심을 소연케하고잇다 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쯤원산부록정(元山府綠町)삼십삼번지원산중학교 교유 청수무웅(淸水武雄)(三一)씨집에 한생복에 한정을입은 스무살가량되여보이는 청년이 복도입구로부터 "마나사과사십시요"하며 청수의부인인 마사에(マサエ)(三一)에게 강요하얏스나 그부인은 사지 안햇다 이에 그는목적을 달치못하고 나갓다가다시들어와서 사달라고 졸나스나 끗내사지안찻슴으로 다시 돌처나가드니 한참후에잇다가 다시 틈어와이번에는 물을 좀달라고 하면서 마즘물로잇는 마사에방으로 틈어서면서 엽주머니속에서 단도를내여 한손에 쥐고 위협하며 다른한손으로는 미리준비하얏든 끈으로 그녀자의 량손을결박한후 옷을벗기고몸을 검사한다음 방안에잇는 의장을뒤추고잇슬때 부인은 그틈을타서뒷문으로 뛰여나가 "사람살려달라"고고함을첫다 이바람에 그자는 목적을 달치못하고 어데론지도망하얏는데 급보를접한 원산서에서는 서원을 비상소집하고 길리(吉利)서장이하 각계주임으로 수사본부를 조직하는한편 요소요소에 물샐틈업는 수사진을펴고 맹활동을 개시하야 어마어마한 경계를하얏다 그리하야그날오후열한시반경 명치정 원천철공소압페지나는 미심한청년을 그곳에서 수사하든 복전(福田)환산(丸山)두부장이 불심심문하얏든바 그자의행동이 수상하야 다시신체를검사한즉 의외에도 단도가나왓다 이에그자를 부근파출소에 다리고가서 엄중추궁한결과 그제야 그는범행일체를 자백하얏다 이리하야 사건발생후 약열시간만에 무난히 범인을체포하엿는데 그는본적을 강원도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허복동(許福童)(一八)이라는 십팔세의홍안소년으로 그서에는 여죄유무를 추궁하는중이다

山谷間의"깽" 突現하며"돈내라"

【光州】전남경찰부에서는도내각경찰서에 통첩을하야 구년말경계를 미리부터하고 잇든바 이십칠일오후 한시경에 화순군남면(和順郡南面)사는 박섭(朴涉)(二七)이가 보성(寶城)을 가려고 전기 화순군남면으로부터 삼사십리가량되는 산골을 지나갈 지음에 돌연 어데로한이 나타나 "현금을하며 가진돈을 전부내노라"고하야 현금이원을강탈해가지고종적을감추고마랏다 급보를 바든소관화순경찰서(和順署)에서는 서원을비상소집하야 근읍각경찰은 물론도경찰부에 급히보고하는 한편때가 음력년말이므로 전도적으로 범인수사에 활동을하고잇다한다

"强賊"三名 金品을奪去

【安東縣】지난이십륙일오후 일곱시오십분경 안동현신민가보고호동(新民街步高胡同)십칠호 원왕정(原王亭)의집에 강도세명이 침입하야주인을 위협하고 현금륙십원과 순금귀고리를 강탈하야가지고 도주하엿다는데 당시경찰서원은그범인을 엄탐중이다

農監에對한怨恨 自殺로써雪忿

訴訟事件에立證해달라고威脅하자 拒絶코投沼凍死

【黃海】황해도옹진군 룡천면포산외리(龍泉面浦山外里)에서는농감의 위압에 못이겨서 소작인이몸에빠저자살을 한일이잇다 룡천면 포산외리에는 신천(信川)사는 최서해(崔西海)—가명—씨의 농장이잇는데 작년팔월경에 옹진군마산사는 황경녀(黃京女)(三七)외 소유토지 시가일천칠백원어치를 그농장에서 매수한 사실이잇서 그것이어지잘못되야가지고 분쟁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되바 그농장의농감으로잇는 리창희(李昌熙)씨가그농장의 소작인으로잇는 손우정(孫宇貞)이란 사람에게 대하야 증인서주기를 루차강요하얏스나 그만거절을하고 말자 그것이분하야 지나간이십일에 리창희는 손우정을 모장소로 다리고가서 위협과 폭행을한결과 손우정은 리창희씨에대하야나는죽어도 내가부치든 땅에가서 죽겟다고말한후에 그길로 자기가소작하든 논으로가서 그곳에잇는 웅덩이에 빠젓스나 수심(水深)이겨우 배꼽밧게 닷지안음으로 죽지못하고 다시 [illegible] 저가서 한탄하고 [illegible] 혹독히치운바람이 불러서 마침내 어러죽고말엇다 이급보를접한 한동경찰관주재소에서는 의사를 대리고 가서 검시햇다 그리고 수십소작인측에서는지나간 이십팔일에 [illegible] 동에서 열고 조사위원을 선정한후에 사실전말을 조사중이라고한다

價格暴騰에對抗 購買組合結成

共同購入을斷行

【大邱】물가폭등의 대항책으로 대구모소비단체(某消費團體)는 구매조합(購買組合)을 계획중이든바 최근에잇서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수일내로 공동구입을 단행하리라한다。이소비단체는 대구에잇서서도 가장 유력한 단체인관계상 만일 이계획이 실현되는날은 부근상점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안흔것을 일반은 예상하는 동시에 반다시 소매상으로부터 반대운동이 이러날것을 예상하야 매우주목중이라한다。

無免許運轉手失手 行人衝突即死

【釜山】지난이십사일오후 다섯시 [illegible] 운전수면허(運轉手免許)가 [illegible] 김재옥(金在玉) [illegible] 이급보를접한 [illegible] 사법주임이 공의를 [illegible] 실지 [illegible] 엄중히 취조를하는중이라한다

長篇小說 그의自叙傳 【39】

長白山人 作 / [illegible]超 畫

소년시대(八)

깨끗한 소망인이오 아모 거리낌이 없던 내 마음에는 혼인으로하여서 잡지도 뗄수 업는 큰 걱정이 뿌리를 박앗다。내 마음은 흐린날 모양으로 흐렷다。

성경에는 부부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것이매 사람의 힘으로 뗄수업는것이라고 하엿다。내 마음에도 이 말은 올핫다。만일 세상이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이라고하면 한 남자가 두여자를 차지할때에 여자 업는 남자가 생기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한 남자는 처녀아닌 여자를 안해로 삼을수밧게 업을것이라고 생각하엿다。그럼으로 이혼을 하거나 첩을 얻거나 일시라도 다른 여자를 접촉하는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엿다。그럼으로 나는 이미 혼인한 안해와 일생을 갈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그리하기 위하야 나는 이 싫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쓰지아니하면 아니 되다고 생각하엿다。그렇게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엿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엇던것일까。내가 힘쓰면 힘쓸사록 안해의 미운 방면만이생각히고 세상에 수없는 여자가 다 내 배필이 될수가 잇엇을것을 하는생각이 낫다。더욱이 S양에게 대한 사모는 날로 더하엿다。내가 혼인한 줄을 아직 모르는 Y는 유난히 나를 사랑한다。그래서 하로는 마침내 내가 혼인햇다는말을 자백해버릴때에 그는 낙심하는양을 보엿다。

나는 S를 사모할 권리가없음을 깨달앗다。마음으로 사모하는것만도 죄가됨을 깨달앗다。그러면 그러할사록 S에게 대한 사모는 더욱 간절하게되엿다。

싫은 안해를 사랑하라는 고민 사모하는S를 마음에서 떼어버리라는 고민 이러한 속에서 일년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와 시를 짓기를 시작하엿다。지금은 그때에 쓴 일기가 다 서실되어버렷지마는 열렬한사모와 후회한 고통을 적은것이엇다。

다음해 하기휴가에 나는 단단히 결심하엿다。이번에 고향에 가면 내 안해를힘껏 사랑해주리라고。안해의 아름다운 점만을 발견하고 마음에 안드는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리라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도가 아니냥 아모리 마음에 들지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사랑하여야할 사람이 아니냥 나는 이를 악물고라도 이 안해를 사랑하리라고。

나는 고향에 가서 조부의 겯에서 하로人밤을 지나고는 곧 처가로 갓다。이때에는 벌서 장인되는 이는 죽고 가세도 매우 치패하여서 조고마한 초가집에 떠나와 잇엇다。그집은 수수밧헤 파묻혀잇고 바로 뜰앞까지 삼이 길로 자라서 삼닢사귀의 향기가 코를 찌르고 지붕에는 박과 호박이 달리고 질적질적한 뜨락에는 긂과 개똥이 개다질을 하고잇엇다。

안해되는 사람이나 장모되는 사람이나 작년에 이를 동안 잠깐깐 본 사람들이라 모도 초면에 대하는 사람 갈고 도모지 말이 어울리지를 아니하엿다。파리가 까맣게 뫼인 방속은 찌는것 갈앗으나 그렇다고 밖에 나 앉을 데도 없엇다。

그래도 사위가 왓다고 닭을 잡고 생선을 사오고 닭알을 찌고 흰밥을 지지고 소주까지 받아오고 이 집 일가人사람들까지 모여들어서 극진히 판대를 하엿다。

그때에는 아직 머리 깎은 사람도 적고 보통학교도 한 고을에 하나씩이나 잇던 때라, 이 놀론 사람들은 엣날 조선 사람 그대로엿다。엣날이라야 이조말엽의 퇴패한 엣날 말이다。젊은 이들은 모여만 앉으면 음담패설이오 도박이오 술먹기오, 담배 피기오, 이것이 그들의 일이엇다。더욱이 이 근방은 떠하엿다。삼사년이나 동경생활을 하야 마음에 교만이 잔뜩 들어갓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마치 딴 인종인것만 같고, 내속에 품은 높은 뜻을 알아들것도 같지않다고 생각하엿다。그들은 내게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또 노름을 권햇으나 나는 다거절하고 도리어 술먹기와 노름하기를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머리를 깎으란 말을 권하여보앗다。생각하면 그때 내 정경이 가엽기도 하고 아니꼽기도 하엿다。제가 무엇이길래, 가장 높은체하고, 가장 깨끗한체 하고——그러나 나는 그때에 아직 제가 어리석은 줄 거지인줄을 알지못하엿다。

000858

日本政府特許局登錄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 一平生兼病健康長壽劑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人生의再逢春

百補丸의效力은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 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 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중、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호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에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중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태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飯過色 人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耳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陳疾과 오랜淋疾도 消滅됩니다

一、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분에게는 第一입니다

藥價 一劑 特價 二十圓 / 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 便宜한口座에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六三二番・振替五番

堂々第一・다를수업는事實

藥業界有史以來百補丸이

最高賣上記錄

그原因은效力斷然第一인까닭!

京城四大郵便局의發送數字가證明

●朝鮮에서過去數十個年間 여러가지 新舊補藥이續出하야 各處에서 큰廣告도 만히 한일이잇지만은 그 賣上高에 잇서서는 百補中이 斷然! 朝鮮藥業界有史以來 最高賣上의 超記錄을내고잇습니다 이것은 京城西大門郵便局의發送數字가 事實을證明하는바이니 속히려야 속일수업고 疑心하려야 疑心할수업는 堂堂한 事實입니다

●百補丸이 이러케 비빨치듯 만히歡迎밧는 理由는 무엇보다도 第一効力이 卓越하고 第一信用이 큰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百補丸은貴族、兩班을비롯하야 京鄕各地名士諸氏의 最高賞讚과 推奬愛用을 밧는바이며 萬人이 다투어 服用하고 激讚感謝 하는바입니다

●世上에서 廣告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크게 낼수가 잇스나 그卓越한藥効에對하여는 洋의東西와 學士는 勿論하고 누구나 마음대로할수업는것입니다。百補丸이 朝鮮에서 第一만히팔리고、第一信用만코、最大의歡迎과 最高의推奬을밧는것은 오즉 百補丸이 補藥界에서 有史以來에 그効力이가장 絶大偉大한까닭이며 廣告가 큰까닭이아닙니다。

●百補丸은 이와가티 効力으로나、信用으로나、賣上으로나、무엇으로나 斷然補藥界에 堂堂第一인것이 속일수업는 事實로서 確定되엿습니다。

이로써 服藥家의 疑心도 一掃되엿습니다

世界經濟

米國景氣益好調

世界的商品高、軍擴「인플레」와 루즈벨트大統領景氣振興策으로

스틸株九十一弗台로

저네브·오·러-스의 警告가 依然 解決難에 잇스면서도 前週의 米國株式市場은 鐵鋼、公共事業株等을 中心으로 强調를 보이어 工業株平均은 前週週末의 百八十三弗臺로부터 前週末에는 百八十六弗臺로 騰貴하고 特히 스틸株는 同社의 六千萬弗 工場設備 近代化計劃이 發表되어 八十一弗臺로부터 八十八弗四分一까지 躍騰하엿섯는데 그後 一息商狀이 되어 工業株平均이 다시 百八十三弗臺로 스틸도 八十六弗臺로 小押하엿든것이 昨二十八日에는 工業鐵道株等이 依然 一息商狀에 잇슴에도 不拘코 스틸株만은 마츰내 九十弗臺를 突破하야 九十一弗八分五까지 奔進하엿다. 이와가티 米國의 株價가 上昇의 一路를 밟고잇는것은 世界的 商品高 及 軍擴인플레에 依한 景氣好轉에 依함은 勿論이어니와 루즈벨트大統領의 景氣振興策이 [illegible] 效果가 나타나고잇는것도 看過치 못할 事實일것이다 [illegible]

英米互惠協定 兩者意見一致

【華盛頓發同盟】去十八日來米한 英國商務長官 런시만商相은 廿三日에 다시 루즈벨트大統領과도 要談하엿는데 헐長官과의 會談에잇서서는 英米互惠通商問題에도 論及되엇다는데 런시만 헐兩氏는 二十五日 「英米互惠協定의 締結을 希望하는點에잇서서 兩者의 意見이 全然 一致되엇다」는 旨의 共同聲明書를 發表하얏는데 同聲明書에 依하면 英米互惠通商問題는 다만 數個의 技術的 問題는 [illegible]

佛蘭西銀行 割引利率引上

【巴里二十八日發同盟】佛蘭西銀行은 廿八日 公定割引利率을 二分에서 四分으로 引上한 [illegible]

鎖國的通商政策에서 多邊的互惠貿易으로

最近의 世界的景氣上昇의 原因은 主로서 獨伊兩國을 비롯하야 各國政府의 軍費支出增大에 依하야 物資의 國內的需給이 促進된 結果에 不外한데 貿易의 回復은 國內的景氣에 基因한 結果에 지나지 안는다. 以上의 事實은 各國의 貿易指數가 生産指數에 不及한것을 보아도 明瞭하다. 그러나 右通貨의 增大에 伴하야 公民經濟의 增加、不均衡한 物價騰貴에 依한 國民生活의 困難과 同時에 再軍備를 豫想한 原料輸入의 增加、輸出産業外의 失業救濟事業、一般事業의 擴充等 工業에 基한 剩餘生産力 處理等을 생각하면 各國政府도 景氣上昇期를 알고 從來의 鎖國的 通商政策의 國際的 轉換을 試하자는 希望을 가질것도 當然하겟다. 和蘭首相 벤도리주스·코리인氏는 年頭 瑞典、諾威、白耳 [illegible]

[illegible]

宇垣內閣流産 財界失望深慮

株式은豫想은것이라反强이나 統制政策强行警戒

組閣難에 陷한 宇垣大將은 二十九日午前十一時五十分 參內하야 大命을 拜辭하얏는데 株式後場은 이미 流産을 豫想하고 도리어 强味이어섯스나 어지로라도 組閣成功을 期待든 財界의 失望은 적지안흔모양이다. 이 流産에 依하야 軍部가 意欲하는것가튼 右翼化內閣의 出現도 考慮되는만큼 財界의 本質的 問題는 尨大豫算實施의 進行、物價易騰等의 經濟的 進展過程은 避치못할것으로 財界가 萎縮되는일은 絶對로 업슬것가트나 統制政策의 實際運用에 當할 大藏、商工兩臣에 누가될지 內閣首班人物如何에 不拘코 財界는 極히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잇서 警戒中이다

[illegible]

今年度豫算은 六萬四千二十五圓（前年보다 十一增加）이오 本年度新規事業의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一、小麥의 改良增殖奬勵、補助（二千圓）

一、道農會專任職員設置、補助（八道、二千四百圓）

可決된 議案은 如左하다

一、昭和十二年度 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件

二、昭和十二年度 一般會計經費分賦收入方法件

三、昭和十二年度 肥料配合特別會計收支豫算件

四、昭和十一年度 肥料配合特別會計收支豫算更正件

五、借入金件

六、昭和十年一般會計事業報告及收支決算件

七、昭和十年度肥料配給特別會計事業報告及收支決算件

八、朝鮮農會土地寄附處分件

九、朝鮮農會給與規定改正件

十、朝鮮農會配合肥料奬勵金積立과補助規程制定件

第二十七期定時總會를 開하고 同期諸決算案과 利益金分配案及監事進辰馬氏任期滿了에 伴한 改選을 行할터인데 進氏는 重任될 모양이오 利益金分配案은 如左하다（單位圓）

當期總益金	一、六八六、三四二
當期總損金	一、一三七、七七一
差引	五四八、五七一
前期繰越金	[illegible]
計	[illegible]

이것의 處分

缺損補塡準備金	四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一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交際費	九〇、〇〇〇
舊株配當（年九分）	四五〇、〇〇〇
新株配當（年九分）	六七五、〇〇〇
特別積立金	一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一、三二一、五二一

倫敦市場에서 日本公債慘落

二·二六事件當時以下

【倫敦發同盟】宇垣大將의 組閣難으로 日本政界不安報道에 倫敦財界에서의 日本公債人氣는 極度로 惡化되어 六分利公債는 二十五日 八十三磅四分三으로 慘落되어 二·二六事件當時以下로 崩落하얏는데 正金에서 直時買出動하얏다

朝鮮內各事業에 東拓의投資激增

東拓金融部의 事業進出은 二兩年來 更히 拍車를 加하야 朝鮮內의 各種事業에 亘하야 資本出資에 依한것이 激增되고 更히 例의 無水酒精을 비롯하야 本年度以降 滿洲化할터인데 金融關係의 現在主要한 事業出資는 如左하다（單位千株）

	總株數	東拓持株
朝鮮鐵道	一、〇九〇	一二二
朝鮮送電	三〇〇	五一
西鮮電氣	二二五	四八
東拓鑛業	一四〇	一四〇
東洋畜産	一〇	五
朝鮮石	二〇〇	一〇
富寧水力	二〇〇	二〇
朝鮮電力	六〇〇	一五〇
鮮滿拓殖	四〇〇	一〇〇
無煙炭	二七〇	三四

이外에 都市經營等의 正傍系事業이잇다

朝鮮農會總會 今年度豫算決定

朝鮮農會第十回 定時總會는 二十九日 午前十時半부터 京城호텔에서 開催하고 慶北、平北代表議員과 三井總副會長을 除한 全部出席하야 總督府로부터 穗積殖産局長、山本技師、尾崎技

政府米買換要綱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發表

政府는 今回左記要綱에 依하야 米穀의 買換을 行키로 決定하얏다

一、賣却及買入豫定數量

（一）賣却豫定數量

（二）買入豫定數量

今回의 賣却數量에 讀者米穀統制施行令第十四條第一項但書의 規定에 依하야 昭和十一年八月乃至十月의 間에서 賣却한 朝鮮米의 買入殘數量約三十萬石을 加한 數量으로함 買入豫定數量은 各買入事務所에 共通하는것으로함

日本內地米約四十萬石으로함

二、賣却의 時期

（一）賣却及買入時期

	賣却	買入
保證金受付	一月一日	一月五日
申込受付	一月二日	一月六日
賣却決定	一月三日	一月八日

（二）買入時期

三、賣却及買入事務所

京城米穀事務所（仁川、鎭南浦）

釜山出張所（釜山）

群山出張所（群山、江景、木浦）

四、賣却米及買入米品種

（一）賣却米品種 昭和八年度及 昭和九年度의 日本內地米로함

（二）買入米의 品種 [illegible]

入하는것은 朝鮮總督府穀物檢查所의 檢查에 合格한 昭和十一年度産 叺入 朝鮮水稻粳玄米及 正租로서 追後 告示할 政府買入米格差表에 格差의 記載가잇는 銘柄記號等級에 該當하고 또이에 相當한 品位를 가진것으로함

五、賣却及買入方法

（一）賣却의方法 入札의 形式에依하고 政府의賣却豫定價格以上의 申込에對하야 最高價格의 申込부터順次配定하고 賣却豫定數量에達하기까지 賣却함

（二）買入方法 入札形式에依하고 政府의買入豫定價格以下의 申込에對하야 最低價格의 申込부터 順次配定하고 買入豫定數量에 達하기까지 買入함

（一）賣渡의 一口申込數量 同一賣却番號의것 百俵以上으로함 但賣却現品의 形增減함

（二）買入一口申込數量 日本內地米는 同一銘柄五十俵 （叺）以上（受渡米는 同一粒種等級二十俵를 不下함）

朝鮮米는 玄米는 同一銘柄 百叺以上（受渡米는 同一粒種等級二十叺을 不下함）正租는 同一銘柄二百叺以上（受渡米는 同一粒種等級四十叺을 不下함）

七、賣却及買入保證金

（一）賣却保證金 一俵（叺）에 金一圓以上

（二）買入保證金 日本內地는一俵（叺）에 金二圓以上 朝鮮米及買入米는 [illegible] 五十錢以上 正租三十叺 [illegible]

八、受渡期間 賣却은 其決定日부터十五日間 買入은 其決定日부터二十日間

買上米應募를 米倉에서代行

米倉會社에서는 今回의政府買上米에就하야 各當業者에 對한 非常한便法을講하야 各顧客의便宜를 圖케하기로 되엇는데 其方法은 如左하다

一、保證金 立替納入

一、入札申込書提出（委任狀添付）

一、現品納入手續

買上의要項은 如左하다

保證金受付	一月五日
申込受付	一月六日
買入決定	一月八日
買入場所	京城 群山 釜山
受渡場所	鎭南浦 仁川 群山 江景 木浦 麗水 釜山

殖銀의純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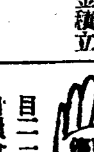
百八十八萬圓

朝鮮殖産銀行에서는 總會는 二月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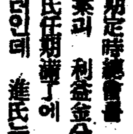
朝銀券發行

昨年과不變

朝銀券發行高는 下旬에 入하자 一億九千萬臺로 二十八日總額은 一億九千七十三萬六千圓으로 昨年同日 總額은 一億九千二百六萬八千圓으로 比하야 九千二百三十三萬圓餘의 收縮을 示하얏는데 滿洲國은 激減을 豫想하얏스나 發券高의 差額은 極小額으로 이原因은 慣習的으로 依然滿洲國內流通이 行하는 때문이라한다



（一月二十八日）▲取引停止 머리야스雜貨商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一 合資會社大阪屋商店代表社員 今西彌三▲京城府龍頭町一四一 龍田精米所 孫春永▲地主 京城府都染町二七의三 崔瑞燮▲新炭商 京城府禮智町二六九 金思鉉▲新炭商 高陽郡纛島面 纛島里四二六 李景浩



十二年度의 朝鮮內土木總材料는 一億七、八千萬圓에 達할 豫想

○ 物價高의 反映으로 勞銀의 官給方針、最低限度生活保證코 勞働者飢餓을 緩和하리라고

○ 物價가아모리 昂騰되드래도 最低限度의 生活을 保證한다하나

○ 問題는 最低限度의 程度如何에잇는것

○ 충분한지 일상한지 피죽이지

짜다잘못하다가는 큰일

今日의市勢（廿九日）

株式 組閣流産 逆行高

前場底堅

軍部態度如何에 不拘코 宇垣氏組閣決意도 相當히 堅固한바잇서 兩者가 對立한채持久戰이 되엇스므로 前途는 全然 豫測할수업서 深刻한 氣迷가 市場을 支配하야 거의 傍觀態度로 積極行動에 나서지 안키때문에 大體로 不動의 保合이 잇는데이 不安中에도 容易히 崩壞되지안는 市勢의 底堅味에는 一方으로는 不安的 疑懼도 업는바아니나 또한 注目을 要할바잇섯다 東新百五 어다

後場反强

宇垣氏 大命拜辭의 報를 젓고도 後場은 反하야 强하야 市勢는 堅調를 不失하고 東新百五十一圓七十錢으로 大引하야 押目買에 支持되는 逆行高의 商勢를 보엿다

十一圓十錢 大新八十九圓七十錢으로 前場을 보앗다

物色買는不絶

政局의不安이 너무도 오래동안 深刻化하야 買氣가 沮害되고 잇기때문에 株는 大體無活氣에 鐵株等은 이고 잇스나 그런中에라도 前途有望視되는 優良株의 物色買는 依然不絶의 狀態이다

金鐵株는 昨日 奔騰의 뒤끝이어 一息이나 依然 强調하야 日産新三四、五로 昨日 最終値보담 五十錢高이오 日鐵新도 昨日八五、〇으로 八三、〇에 下押햇든데다시 八三、五이며 三菱新도 八十錢高인 八七、八이며 朝鮮製鐵은 少弛로 三十三圓二、三十錢 도랏지는 三十錢低로 三一、九이며 全羅鑛은 一九、八로 二十錢高이엇다 日滿亞麻紡은 復配豫想說로 買進되어 今朝三二、四로부터 三三、二로 奔騰을 演出하엿스며 日本絹은 新도 六十錢高로 一八、五 同新九十錢高로 二九、九이며 日出紡도 五十錢高로 一六、三이엇스나 紡織人絹株는 大體로 狀을 不免하엿다 商船新도 一息으로 一圓低인 二八、〇 大阪製鐵도 新株一九、四로 六十錢低이나 製鐵는 押目買의 人氣이엇다 大阪製鐵은 繼續高로 二二、五이나 第二는 不變인 一九、七이엇고 大同産業은 五圓拂込을 하엿는데 拂込加算으로 八圓五、六十錢唱이 엇다

期米 高寄後에 低落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二圓〇八錢止와 共히 三十圓五十七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十錢인 三十二圓六十一錢 丁反高를 演하고 三十一圓六十一錢 인四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〇五錢으로 十二錢까지 波及함을 딸아 五十三錢으로 六十錢까지 反高하더니 結局阪地九節〇四錢으로 〇九錢에 止함을 伴하야 九節四十八錢으로 九錢에 場을 止하엿다

株 ……頑强한 決意로 最終까지 組閣을 하겟다는 宇垣大將도 時不利兮라 莫不得已大命을 拜辭▲流産이 되면 暴落場面을 보이리라고 豫想한 市勢는 意外로 反强▲流産必至는 時間問題로 알고 이미 織込되엇든것으로 볼수밧게▲그러나 아직 政局은 安定된것이 아니오 將次도 어떤 場面이 展開될지 未知▲時局의 如何를 不拘코 世界的인 景氣 의 波動을 反映한 市勢가 出現할 것은 前途의 希望▲차차 時局이 安定되면 市勢도 自然之勢로 回復할뜻

米 ……▲今朝前場에 納會된 當限은 벌서부터 渡米竟集을 說이 엇지 아니하야 月末一高를 豫期하엿든 바이나 意外渡米가 如前히 만흔것과 衆하야 丸道商店의 賣物이 旺盛하야 ▲低落되고 말엇다 ▲期米는 一月一日까지 三十圓二十一錢까지 納會、安寄하엿다가 十、十一、十二限과는 正反對

國債 鈍狀裡에 少押

▲東京 【東京電話同盟】 依然 不透明으로 人氣는 大體 動搖하야 內債는 大體 鈍狀을 呈하야 保合을 示하고 佛貨도 平一十錢下押하엿스며 實物一回四分半도 同樣으로 五錢少押이오 三分半도 氣迷하야 低落하야 米貨도 稍히 弱하야 低落하야 實氣가 多少 잇서 六分半 五分半 共히 一圓二十錢 暴落의 形勢로 재미스럽지못하엿다

▲一回四分 一〇〇、八〇▲二回四分 一〇〇、四五▲佛貨 九六、五

京電의增資

三月에 新株公募

京城電氣의 增資（資本金二千五百萬圓으로倍加）은 二十七日定時總會에서 決定하얏는데 總會後 直時 正式認可申請한後 來月에 入하야 當局에 要求하리라한다 新株는 舊株二株에 對하야 新株一株를 割當할 豫定으로 [illegible] 三月中旬에 拂込豫定으로 大體 一株에 二十五圓을 拂込하고 各銀行을 取扱銀行으로하야 公募하리라한 다 會社로서는 準備되는대로 株式의 開放을 目標로 하고잇다

實物前場取引

▲朝鮮製鐵 三、三五 ▲全鮮鑛業 三、二五 ▲人造肥料（八、五） ▲富士木材 二九、一〇 ▲第二回債 四 ▲朝鮮金融 二八、五 ▲京南鐵道 一〇〇、〇 ▲日滿아루미 [illegible] ▲大同産業 六、八〇 ▲鐵水港製糖新 九六、五 （取引高 一二二〇枚）

月末騰勢一挫

賣方防戰으로

米界는 三十圓五十錢臺에는 伸縮의 感이업지 아니하고 更히 昨年十月二十六日 十三錢으로부터 四百五、六十丁이 昂騰한 末期的氣分이업지 아니하고 또한 月末에 入한 關係上 賣方은 될수잇는대로 利益을 確保하려는 傾向이 잇서 天井不知의 形勢도 思惑하지 못하엿스며 當局에서 渡米를 集中하는 中先도 또한 防戰買物이 現出하야 當限은 四十錢丁의 高値 先限은 四十錢高로 低落하야 果然 此邊 十錢高로 [illegible] 叫 天井으로 보는 當業者 의 態度가 依然 頑强함을 보아 相場은 아직도 賣安心이라는 가깝이다

後場續落

後場은 三十圓 餘이 四十錢인 三十圓二十錢로 場을 止하고 [illegible] 三圓四十錢으로 四圓三十六錢에 止하고 五圓二十九錢에 低落하엿다

當限一代記

步幅三百七十丁

今前場에 終幕을 告한 當限은 客年十一月二日에 二十七圓二十一錢으로 誕生한後 二十七圓七十錢까지 小弛하엿다가 十二月十一日의 十圓五十錢 良好로 七圓九十四錢까지 昂騰하더니 同月十一日頃에는 五十錢安 朝鮮米의 第二回豫想 第一回豫想에 比하야 二十五萬 六千八百十九萬石에 [illegible] 一二萬十九萬千十二石의 發表로 〇七錢까지 急落하엿다. 그 이百인 十二日에는 日本內地米 第二回豫想發表가 六千六百三十八萬六千九百八十二石으로 第一回보다 百四十五萬九千七百八石의 減少餘丁의 低落에 止하게되엿시 [illegible] 三十錢에 入하야 七圓七十一 錢의 高價를 示하고 結局四十一錢으로 中限에 入하얏다 卽 中限時代는 米出廻期인 十二月에 入하고 不拘 하고 產地出廻가 稀薄하야 渡米豫想이 集中하야 步幅이 二十八圓八十錢까지 暴騰한 그 대로 年末大納會를 告하고 越年後本月은 春高氣分의 買氣가 旺盛할뿐아니라 三十億四千萬圓에 達하는 大豫算이 議會에 提出되어 一般物價高의 相伴하야 漸騰高價로 三十圓十九錢까지 騰貴하는 途中日本內地米實收發表가 六千七百三十四萬二千七百二 十三石으로 第一回豫想보다 九十 五萬五千七百四十二石의 增加를 示하야 그러나 結局三十圓二十一錢까지 奔騰하야 九圓二十錢까지 押하얏다 納會하야 三十圓二十五錢에

當限受渡內容

石數	一萬七百石
價格	三十圓二十錢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正米 産地頑强 堅調

京城堅調 天候不良도 兼하야 實物薄으로 市況은 堅調 味를 繼續中이다 ▲三等三〇、四〇 四等三〇、一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仁川底堅 産地頑强으로 日本內地의 實質는 依然 困難하야 地邊精米側도 原料가 이狀態가 繼續되면 操業을 中止할수밧게 업다는 편도잇서 取引停頓

市況은 堅强하야 推移十錢高氣配이엇다 ▲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二等白米 一三、〇〇

釜山少堅 市中所持物이 薄弱함으로 實質는 不振이나 依然 强調味를 不失하고 十錢高를 보히고 ▲三等三〇、七〇 四等三〇、四〇 一等白米 二二、九〇

大邱少高 正米의 出廻는 依然 旺盛하야 産地는 不賣하고 市中賣物은 全無의 大모양이나 十錢高를 보히고 ▲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五〇 白米 二二、三〇

群山少堅 出廻는 漸減하야 産地賣却은 헤外의 强調에 十三圓이 되엇다 ▲三等三〇、八〇 四等二九、九五 一等白米 三三、〇〇

木浦强堅 實質는 相當히 小口에 不過하나 正租의 出廻는 頑强히 不賣態度를 取하야 八〇

海外經濟（二十八日）

[illegible]

銀行券（二十八日）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鑛油粕·麥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

正租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砂糖

[illegible]

生糸

[illegible]

人絹

[illegible]

今日의財界（廿九日）

◆米

仁川期米 先限	三一、〇〇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三一、〇〇	[illegible]
京城三等米	一石	三〇、〇〇
正租（仁川）一等	一石	[illegible]

◆株

[illegible]

朝取期米實買高

[illegible]

東京短期賣買高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短期 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金·銀·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應酬販賣換引金代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 3939 1572 振替京城 234

期米 恒安取引店

光皿 金益證券 米 株 益商店

東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二丁目 電話 六一九 五二一 二九六